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7월 3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정을 지탱하는 주부들이 흔들리고 있다. 아무리 일부의 타락 현상이라고 해더라도 우리의 '어머니' '아내'가 도박과 잘못된 성유희에 빠져들었다는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굳이 불지5계의 '불사음(不邪淫)' 계율을 거론치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텃밭이며, 2세를 양육하는 주부가 병들었다는 것은 사회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돈과 쾌락의 탐욕에서 비롯된 주부타락을 우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편집자 주〉

性도덕의 회복

도박에 빠지는 사람에게 여섯 가지 위험이 있느니라. 이기더라도 미움을 사게 되고, 지게 되면 재산을 잃어 슬픔에 빠지며, 재산이 줄어들고, 법정에서는 그 말에 무게가 없게되며, 친구나 관청으로 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혼담에 지장이 있게 되느니라.
〈사갈로바다 수탄타〉

욕망은 마치 물결과 같고 번개와 같고 등불 같나니, 여자를 욕심냄은 독과 같아서 소용돌이 속에 든 고기와 같다.
〈정법염처경〉

남들이 온갖 것에 대하여 취하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후세에 마음 속이 편안하여서 마침내 잃어버릴 근심이 없으리.
〈분별선악소기경〉

욕심은 불이나 칼이나 독이므로 패락을 구해서는 안된다. 온갖 욕심은 마치 불이 맹렬히 타는 것 같다.
〈정법염처경〉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는 것. 마치 물거품, 허깨비, 야생마, 물 속에 비친 달. 그리고 뜬구름 같다.
〈화엄경〉

욕망은 애착에 의해서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원각경〉

탐욕을 떠난자, 노여움을 떠난 자, 어리석음을 떠난 자, 번뇌의 더럽힘이 없는 자, 애착을 떠난 자, 집착이 없는 자, 이와 같은 사람은 진리의 땅에 산다.
〈미린다왕문경〉

조그만 즐거움을 버리고 커다란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면 깨우침의 큰 즐거움을 위해 작은 즐거움을 버려라.
〈법구경〉

욕망은 숯과 같으니, 애욕의 불꽃이 왕성해지면 크게 괴로운 까닭이다.
〈유가사지론〉

탐욕은 악한 것이니, 사람을 끌어 지옥에 이르게 한다.
〈증일아함경〉

과로움의 원인은 탐욕인바 범부는 미혹하여 그것을 즐거운 줄 그릇 생각한다.
〈성실론〉

관련기사 2 · 11면

'고령화시대' 노인포교 나서자

교계 복지시설 불과 17곳…사찰마다 노인프로 개발 절실

핵가족화 영향으로 60세 이상의 혼자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노인복지 · 의료시설 및 포교프로그램이 취약해 노년층에 대한 포교대책 마련과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심자어 단위 사찰에서의 노인대상 상설 포교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해 노인포교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통계청이 실시한 '95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49만2천가구로 5년새 77.8%나 증가한 것으로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노인전용 불교복지시설은 관음대비원 보리수마을 등도사자비원 등 전국에 불과 17개소 뿐으로 파악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복지시설 141개(95년 보건복지부 기준)의 약 12.1%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기독교 83개소, 천주교 23개소와 견준다면 노인포교에 대한 교계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노인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센터를 갖추고 있는 복지관 및 노인대학, 각 사찰단위의 노인정을 포함하면 불교계의 노인복지시설은 다소 증가하고있는 추세이다. 또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광명의원 등을 합하면 그 수는 조금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노인시설은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폭넓은 서비스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노인복지에 대한 경험부족과 운영상의 미숙등은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단위 사찰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 여가 프로그램 상설화와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불교복지전문가들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종단 및 각 지역사찰, 불자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도필선 기자〉



그윽한 미소 '세계인 찬탄' 애틀랜타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하이미술관 링스(고리)展에 선보인 금동미륵반가상(국보 제83호). 법열에 잠긴듯한 그윽한 미소에 관람객들은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영담스님


◇철환스님

동참해주신 분 △영담 석왕사주지: (5구좌) △철환 금강반야원원장: 대전 보문고(2구좌) △정환 총선사주지: 여수 문수종합복지관(1구좌) △정인 보덕사주지: 당진여고(1구좌) △도일 보현사스님: (1구좌) 〈7월25일 현재 총 379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종단협 흔들린다

조계종 견제…친목 내세우나 결별우려

태고·천태종등 21개종단 '불교종단진흥회' 발족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소속 28개 종단중 태고, 천태종 등 21개 종단이 조계종을 배제한 '대한불교종단진흥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대한불교종단진흥회는 지난 12일 진각종 통리원에서 각 종단 총무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조계종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회장에 배일공 원융종 총무원장을 사무총장에 전남정 총화종 총무원장을 임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불교의 균형있는 발전과 화합을 도모키위해 대한불교종단진흥회를 중심으로 조계종 일변도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체질개선이 절실하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친목도모를 표면에 내세운 종단진흥회의 결성배경은 지난 5월 태고종, 6월 천태종, 7월 진각종이 '조계종 이외의 종단은 소외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잇따라 가입, 본격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종단협 구성에서부터 당연직 회장등 조계종이 사만 5명에, 부회장스님이 상주하는데다 최근 조계종스님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려는 움직임까지 알려져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종단진흥회측은 종단협 운영과 정부의 불교 종무행정도 조계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단협의회운영이 각종단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행사때마다 조계종 생색내기에 치중했다고 제시했다.

종단진흥회 한 관계자는 "조계종의 1개 하급부서처럼 운영되는 종단협이 정상화되지 않고 진흥회의 의견이 반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에는 종단협과 결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종단협의회 부회장 지하스님은 "관망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가시화되면 종단협 총회를 열어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단진흥회사무총장 남정스님은 "8월 23일 정기모임을 개최한뒤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국민회의 「새연등회」 8월창립

국민회의 불자모임인 '새연등회'가 창립된다. 박상규 추미애 조성준의원 등은 지난 9일 준비모임을 갖고 8월중 창립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현재 이 모임에는 12명의 당소속국회의원과 원외지구당위원장 4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창립준비위원회는 김대중총재와 합께 31일 해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계종-공원공단 분리징수 논란 15면
'쪽물염색' 첫 사찰강좌 13면
큰스님 생활법문책 인기 12면
올림픽 금메달 '모정불심' 16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계시판 모뎀번호 722-1850-3

다음주 휴간 89호 8월14일자로 발간



원비·디를 기억하십니까?

30年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一洋藥品의 원비·디가 創業 50周年을 맞아
1996年7月1日부터 470원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원비·디의 앞날에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효능 · 효과: 피로회복, 간기능 보조 및 개선
용법 · 용량: 1일1병1~2회
医薬品

일양약품

사 설

교육불사의 새 전기

정부의 교육개혁과정에 의한 '대학설립·운영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대학교육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여 고학력 위주의 '대학'을 일반화하면서 특성화·전문화교육으로 다양하게 급변하는 산업사회현상에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불교계도 이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하지않으면 다종교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여측도 가능하다.

단순히 대학설립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승가대학이나 불교교양대학이라고 하는 언필칭 '불교대학'이 당장이라도 정규 4년제대학으로 승격할 것처럼 들뜨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교단이나 대학운영자의 의식개혁과 교육경영에 대한 사려깊은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종래의 산중전통의 전문강원이나 불교교양대학의 관념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절대 금물이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새 규정에 의해 대학설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아 새롭게 인재교육불사를 시작하는 차원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로 대학설립의 전제요건은 학교법인 설립이다. 현재 중앙승가대학은 학교법인과 교육과정과 시설 내지 교수확보가 기준에 가깝게 되어있어 별 문제가 없다. 법인설립은 종단이나 사찰경영책임자들의 의식이 확실해지면 문제가 없다. 특히 재산권이 결부되는 까닭에 무소유의 이해와 체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둘째는 교수요원의 확보가 문제이다. 그동안 교육은 염불처럼 종단 3대 중점사업으로 거론됐으나 정작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가 극소하였다. 더구나 스스로 어렵게 공부를 했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집안의 교수가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전통강원의 강사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학기준에 맞는 교수요원을 확보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외의 대학에서 현대적 석·박사의 학문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재원들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셋째로 불교전통교육을 전수하는 것이 좋다. 불교는 이론으로 성취할 수 없다. 이론적인 것은 이론으로 끝날 뿐이다. 종교적 실천이 없는 교육은 이단과 시비만 조성된다. 따라서 전통의례(범패), 불화·불상조성, 전통건축 등 불교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화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불교는 한국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사찰의 전통과 수행적 특징이 있다. 이 분야는 사회적으로도 독창성을 인정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것을 살리고 계승하는 교육이 시급히 요청된다. 불자들 뿐만아니라 일반 사회인들도 관심 갖는 전문분야로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넷째로 내실있는 교육, 철저한 수행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승려교육도 과거에 비하면 계행교육에서 해이해진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철저한 청규를 준수하는 수행교육이 아니면 사회대중이 외면하게 될 것이다. 스님이 의식집행과 대중설법을 하지 못하고, 교양대학을 졸업한 포교사가 포교설법을 못한다면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대학설립 개방화에 즈음해 불교계에 비하면 기독교계는 10여배가 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할지라도 양보다는 질에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정예교육의 장으로 차별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교단적 관심이 모아져야 하겠다.



◇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핵가족화 추세와 젊은층의 농어촌 이탈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소외받는 노인이 늘고 있어 노인포교가 절실히 요구된다.

열린마당 노인포교

60세 이상 혼자사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95 인구주택 센서스에 따르면 배우자나 가족없이 혼자살고 있는 노인가구가 작년 10월말 현재 49만2천가구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포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인포교, 얼마나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해야 하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전문가 진단

보각스님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처님 품에서 여생을"

노인문제 불교의 효사상으로 극복

고령화사회라함은 전체 인구에 대비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중인 사회를 뜻한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5.7%(2백54만명)였다. 2천년에는 6.8%에 이를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 영양공급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노인은 존경받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급격한 진행은 노인을 공경의 대상에서 도리어 국가나 가족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노인문제를 가족이나 사회문제로 대처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노인복지 국가예산은 6백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12%에 그쳤다.

여기에서 불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당위론이 부각된다. 불교는 자비를 제일의 덕목으로 삼고 있으며 은혜를 알고 갚는 것을 자비의 근본으로 꼽고 있다. 물론 그 은혜에서 부모의 은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만큼 노인공경의 미덕도 같은 중량으로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의 노인, 넓은 의미에 있어 사회의 부모들을 위해 불교가 무엇을 해야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이다. 물론 교계내에 몇몇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시설의 수가 아니라 노인포교에 대한 종단과 각 사암 그리고 신도단체들이 갖는 인식의 정도이다. 체험으로 얻은 삶의 지혜를 가진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일생을 부처님의 품안에서 회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포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불교계의 실버산업 참여는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와는 달리 날로 다양해져 가는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같은 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인력의 양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계 노인복지시설 확충 경로사회 선도하자

안순진 〈불광정각여성대학 학장〉

노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노인에게 일터를, 갈곳없는 노인에게 보금자리를, 외로운 노인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어줄 불교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이 태부족한 것 같다. 설령 있다할지라도 단발적으로 행해지는 행사에 그쳐 노후의 적적함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불교의 자비는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은 생활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기보다 부처님말씀의 논리적인 귀결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불자노인들은 어떤 노인들보다 무료하고 외롭다. 젊은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복지관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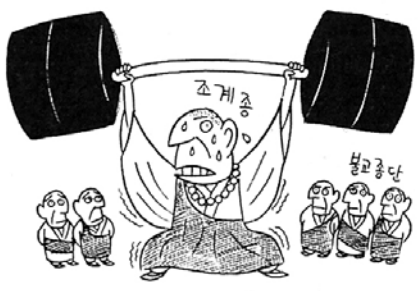
공원 그늘에 맥없이 앉아 황혼에 저물어 가는 석양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사찰이나 불교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곧 포교의 밑거름이려니 생각하고 우리 노인들을 위해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부처님전에 귀의해 남은 여생동안 부처님 울타리 밑에서 기도하며, 미력한 힘이나마 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쓸모있는 한 인간으로 살다가는 것이 불자노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합심하면 좋을텐데…

목어

처용(處容)의 아내는 아름다웠다. 역신(疫神)이 그 미모를 흠모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후 몰래 처용의 집에 가서 동침하였다. 처용이 밖에서 돌아와 잠자리를 보니 두 사람이 있었다.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 들어와 보니 다리가 넷이도다. 둘은 나의 것이었고…."

처용은 노래(처용가)를 부르고 춤(처용무)를 추면서 물러났다. 역신은 처용앞에 꿇어 앉아 맹세를 하였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안에 들어가지 않겠소."

그후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린 부적을 문에 붙여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움을 맞았다.

현대판 '처용부적'

널리 알려진 처용설화를 다시 상기하는 뜻은 성도덕 부재로 위기를 맞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현대판 '처용부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싶어서다.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가정주부의 윤락행각이 불거져 나왔다. '심심하고 무료해서' '자녀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어엿한 부인들이 매춘을 한 것은 어디서 온 병리현상일까.

가정은 남녀가 '서약'으로 시작한 약속의 땅이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 '성'을 쾌락의 도구 또는 돈벌이로 삼다니…. 이는 마치 지진에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듯 가정이 흔들리고 따라서 사회의 근본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 날로 희박해지는 윤리·도덕, 전도된 가치관. 우리 사회를 이 지경으로 몰고가는 그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과 대책을 마련해 '동방예의지국'이란 옛말을 되찾아야겠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바쁜 세상에 심심해서 주부가 매춘부로 전락하다니 어불성설이다. 우리속담에 '할일 없으면 염불이나 하지'라는 말이 있다. '무료하다'는 중생에게 염불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바로 불교의 몫이다.

부처님께서도 성도덕 문란을 경계하셨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탐하거나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다른 여인을 따르면 악도에 떨어진다."(장아함경)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일이 어렵다고 해서

일이 쉽고 어려운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당장 어렵다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훗날에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선림보훈〉

협찬 한국불교포교사협회
회장 혜철
Tel.(02)813-8842

두타산 삼화사 약사전 신축 상량식

귀의 삼보 하옵고

두타산 삼화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의 창건 도량으로 (AD642년) 산(두타산) 바다(동해망상) 동굴(천곡천연) 계곡(무릉계곡) 폭포(용추폭포)등과 함께 자리한 천삼백년의 호국기원 도량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약사불은 중생들의 마음의 번뇌와 육신의 병고를 치유하는 십이지대원을 수지하고 중생들을 제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근대산업사회(쌍용양회)에 밀려 이곳 중대사 자리에 이주후(1977년) 불상이 훼손되고 사옥이 폐허 지경에 이르러 소승이 십개년 도량정화불사 계획으로 천일기도와 더불어 금번 약사철불이(지방 문화재 제112호) 복원 봉안될 약사전 신축 상량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코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여 선근인연을 맺으시기를 기원 합니다.

불기 2540년 7월 25일

— 다 음 —

■ 일 시 : 2540(96)년 8 월 6 일 (음 6월 22일)

■ 장 소 : 두타산 삼화사

■ 증 명 : 박 비룡·김 인허 큰스님

■ 법 어 : 김 현해 큰스님

■ 문의처 : ☎0394)34-7661~2, 34-7546

(우)240-350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두 타 산 삼 화 사

주지 (자광)원행 합장

재정·교원난 이유 대부분 '주춤'

불교교양대학 정규대 설립 전망

지난 16일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승가대학과 지방승가대학은 물론 500여개 불교교양대학들의 전문대 및 정규대설립 추진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교계 교육기관들이 전문대 및 정규대승격을 위한 설립에 업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범음·동방·삼화 3~4곳 추진 움직임

전문도제 양성 호기…종단차원 지도 필요

정규대승격 승인절차만을 남겨놓은 중앙승가대학외에 정규대 및 전문대학설립을 위해 서류신청준비 등 본격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곳은 봉원사 옥천범음대학, 동방불교대학과 삼화불교대학 등 3~4곳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옥천범음대학(학장 대운)과 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스님)이 학교법인을 설립해 각각 4년제의 '범패교육전문대학'과 '불교대학'으로 육성한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불교교양대학 중 중앙승가대학에 이어 정규대승격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옥천범음대학은 한학년당 40명(~50명) 정원에 공사완공단계에 있는 각층 200평의 4층규모 만불전(800평·봉원사內)을 교사와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범음대학이 예체능계열이 아닌 인물사회계열로 설립을 한다고 볼때 학생 1인당 3.6평 즉 40×4×3.6해서 576평만 갖추면 된다. 또 대학졸업자 및 동등자격자로 규정된 교원의 확보에 있어서는 영산재보존회에 인간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박송암 장벽응 이일응 정지광스님과 준인간문화재 및 이수자들로 하여금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학동등자격을 갖추도록 하는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태분규 사찰인 봉원사에서 학교법인을 설립하기까지는 조계종과 태고종, 재산관리권자인 서대문구청장과의 합의가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그외 전문대학 설립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삼보불교대학·대원불교대학·동산불교대학·광주불교대학 등은 추진의지와는 달리 임원회의 및 논의절차만을 거치고 있는 등 학교법인설립을 위한 재정 및 교원마련 등을 이유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이들 교양대학 측은 불교교양대학을 2년, 4년제의 전문대 정규대학으로 재정비할 경우 학력, 연령 제한없이 불법을 배우러오던 30~50대의 불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문제와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지원여부 등 장기적인 학교의 존립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

또 지방승가대학의 경우는 '수행자로서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강원체계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출가자의 계속적인 고학력화로 정규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불교계 전반적으로 주춤거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방승가대학의 전통불교교육의 고수는 불교교육과 수행의 고유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반해 불교교양대학의 대학설립에 따른 주춤거림은 각 교양대학의 자체 여건마련에 따른 소극적인 준비와 더불어 종단적 차원의 설득력있는 교육불사에 대한 설계부재가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교계 교육관계자들은 "경쟁력없는 불교대학의 난립은 불교교육의 중차대한 면에서 볼 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불교 건학이념으로 도제양성과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타종교에 비해 월등히 적은 시점에서 종단차원의 보다 철저한 불교교육의 방향 설정과 각 대학측의 적극적인 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또한 불교가 때맞추어 적절한 교화를 펴기 위해서는 순수불교학을 전공하는 대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천편일률적인 교과과정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각기 특성있는 대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도필선 기자



◇전국 50여개 불교단체와 1만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한 청정운동은 불교신앙으로 우리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불자들의 의지를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대구대회 모습.

21일회향 '청정운동 전국대회' 결산

"범재가단체 단합가능성 확인"

전국 50개단체 1만명참가 … 청정성 회복 씨뿌려

성폭력·환경등 사회문제 불교적 해법제시 '과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주제로 지난 6월 9일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 6개도시에서 펼쳐진 청정운동 전국대회가 서울대회(21일)를 끝으로 회향됐다. 이 대회는 주제에서 나타나듯 우리 사회의 모든 혼란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사회의 청정성을 회복하자는 사회개혁의 성격을 지닌 재가결사운동이었다.

대한불교진흥원 우리는선우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불교재가회의 한국불교대원회 대불련등문회 등 주요 불교단체와 각 지역의 불교운동단체가 결합해 불교운동의 지역성을 강화하고 범재가단체의 단합이라는 새로운 재가운동의 전형 창출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오늘날의 우리는 인간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한 청정운동 선언문에서도 표현했듯이 혼란한 사회의 청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교인들의 당연한 신앙운동이기도 했다.

불교진흥원 권오현 사무국장은 "한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 세상이 악해지고, 한 사람의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세상을 만든다는 경전의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신앙운동이었다"며 "불자들에게 청정성의 씨앗을 보시했으니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 운동을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청정운동 홍보비디오 상영, 강연, 선언문 실천지침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연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교적 해법을 모색했으나 신선함보다는 익히 알려진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선에 그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는데는 미치지 못했다.

실천지침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내용들이었다. 매주 월요일을 청정운동 실천의 날로 정해 △술 담배 고기 등을 삼가한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말을 삼가고 화를 내지 않는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월 1회 이상 불우이웃을 돕고 환경운동에 나선다. 이 운동의 회향 이후에도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회향대회를 겸한 서울대회에서 서돈각 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청정운동 실천대회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의 성과를 내년에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동국제강 장상태회장도 지난 7월초 열린 진흥원 이사회에 참석, 계속적인 협찬을 약속했다.

이 운동에 전국 50여개 불교단체와 1만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했지만, 재가운동으로서의 큰 흐름을 이루는데는 미치지 못했다. 한 교계인사는 "성폭력, 국회공전, 환경문제 등 큰 이슈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청정성을 개인의 문제에만 한정시켰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한 사회적 설득력을 지닌 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대해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가 불교내의 청정성 회복을 호소하는 것이었다면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대사회적 실천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시론

국회의원들의 '생명나눔'



박 광 서
〈서강대 교수·물리학〉

며칠 전 일간지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다.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사후에 각막을 기증하기로 공동서명하고 각종 입법활동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다짐했다는 얘기다. 이미 조용하게 장기기증 등록을 한 사람들도 많은데 새삼스러울게 무엇인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또 죽고난 후에 각막쯤 기증하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할 지도 모른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함직하고 남의 일 같이 말들도 한다.

신선한 모습에 국민감동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국민들에게 비쳐진 그동안의 모습과 대비되는 사건이기에 반갑다.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보통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세워 장기기증 신청을 하고, 그 장한 마음들이 소리없이 주위를 감동시켜 생명나눔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더없이 소중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인류와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고 스스로 실천하기보다는 개인이나 소속 집단의 권력과 이해관계에만 얽혀 니전투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시화호나 여천공단같이 썩어가는 세상, 돈이면 가족도 인륜도 저버리는 세태, 쾌락을 위해서라면 남의 고통이나 죽음도 안중에 없는 성폭력 선진국이란 부끄럽고 답답한 현실을 생각할 때 이번 국회의원들의 각막기증 소식은 그래서 더 신선하고 돋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죽고나서 기왕에 썩어 없어질 물질에 불과한 각막 하나쯤 기증한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대단한 것인가 하는 점도 장기기증운동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사실 우리나라의 생명나눔운동은 그 역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각막기증만 보자. 시신경은 살아 있으나 각막의 손상에 의해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에게 각막을 이식해 줌으로써 광명을 되찾아 주는 것이 각막이식이다. 50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장기기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44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각막기증운동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본의 경우 기증등록자가 1백만명에 이르고 특히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는 전 국민의 50% 이상이 안구기증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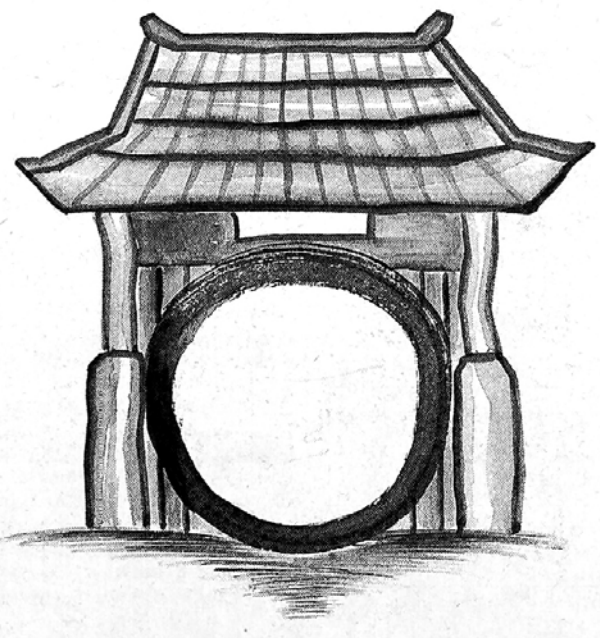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현재 15만명의 시각장애인이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중 2만여명은 각막만 있으면 이식수술로 바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각막기증운동은 1962년에 시작되어 최근 종교계의 생명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힘입어 매년 평균 5천명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현재 3만여명의 기증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신에 대한 오랜 유교적 정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각막기증자가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설사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혔다 해도 막상 사망 직후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그 유가족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각막적출에 적정한 시간인 6시간 이내에 적출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각막이식수술은 매년 수백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장기기증 등록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공적으로,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다.

배운대로 보시행 나서자

우리 불교계 생명나눔운동의 현주소를 보면 2~3년 사이에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꽤 높아졌다. 그러나 타종교의 장기기증운동이 전문인력, 예산, 기증자수 등 모든 면에서 불교계의 10배 이상인 점을 생각하면 모든 불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새롭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선 가르치고 배운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부처님 법을 수십년 들어도 대승보살의 덕목인 보시행 한 가지를 실천함만 같지 못하다. 이와 함께 불교계 지도자들이 중생구제에 확실하게 나서달라는 것이다. 불교를 앞세워 자신의 명예나 이권을 챙기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불자의 모습인지 몸소 실천해 보여주는 교계 어른들이 많아질 때 사회를 밝히는 불교의 기능은 힘차게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 속의 불교 ⑧③

열린 세계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



제석천에는 인타라망(또는 제망帝網)이라는 보배 그물이 있다고 한다. 이 그물에는 낱낱의 코마다에 보배 구슬이 달려 있고 그 구슬 하나하나마다엔 다른 낱낱 구슬의 영상이 비치며, 또 그 영상마다엔 다시 모든 구슬의 영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치 거울과 거울을 마주 세워 놓았을 때 거울마다에 거울 모습이 끝없이 중첩되는 것과 같다.

이른바 중중무진이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고 하는데 일(一) 속에 다(多)가 있고 다 속에 일이 있는 상즉상입(相卽相入)을 일컬음이다.

인타라망은 이 삼천 대천 세계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개체마다엔 전체가 투영이 되어 있으므로 개체가 전체요, 전체가 개체라는 둘 아닌 도리를 나타내고 있음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내가 곧 전체요, 내 속에 곧 전체가 있고 나는 전체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 우주 전체는 너, 나의 구별이 없이 완전하게 열린 세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나, 내 가족, 내 고장,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상의 세계일 뿐 본래는 울타리가 없이 완벽하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닫힌 세계에 익숙해 있다. 무엇보다도 내 몸, 나는 독립적인 세계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은 매우 완강하다. 비록 이 세상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된 공생의 세계임을 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삶의 관계성이지 본질면에서는 개체와 개체는 독립적이라고 믿는다.

깨달음이란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감을 말한다. 나와 대상의 구별이 사라지고 본래부터 열린 세상이라는 실상을 아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방 안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 광활한 들판으로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안팎이 없이 넓디 넓고 자유스러운 줄을 아는 것과 같다.

우주는 광대무변하고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자유롭게 순환을 한다. 아니, 열린 세계이므로 드나듦 없이 드나든다고 해야 옳다. 고로 퍼내어도 줄지 않고 보태도 늘지 않는다.

얼마든지 꺼내 쓸 수도 있다. 닫힌 세계 속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지만 열린 세계의 에너지엔 한계가 없다. 끌어다 쓰는 대로 무궁무진이다. 무량한 보배 창고라고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열린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엔 문이 없다. 무문관이다. 본래가 열려 있는 세계이므로 들어간다 나온다가 없기 때문에 문이 없다. 허허벌판에 나고 드는 문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들은 스스로 닫힌 세계를 고집하기 때문에 열려 있는 줄 모르고 문을 찾으려 한다. 스스로 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찾으려 한다.

담장을 헐어내면 안팎의 경계는 사라진다. 내 몸, 나를 닫힌 세계로 보는 관념만 버려 버리면 구태여 문을 찾고 통로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대로 열린 세상이 된다. 내 속에 전체가 투영되고 전체 속에 내가 투영되는 둘 아닌 세상이 된다. 그래서 죽어야 보리라, 닫힌 세계로 보는 나의 관념이 죽어야 열린 세계를 보리라 한 것이다.

불법은 우리들을 열린 세계로 인도한다.

협찬 : 주 인 공

법회 안내

법림사(062)234-2207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마야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철야정진법회 첫째 토 저녁8시

천명사(062)234-6203
정기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최정사(053)767-4860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천불기도 매월 24일(음) 오전10시
가족대법회 매월 셋째 일 오전10시30분

은적사포교원(053)653-923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1시
금강학생·동문회법회 매주 목 오후6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삼장사(0397)73-2487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금 오후8시
고불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삼개사(0391)43-9234
대법회 매월 14일 오전11시
토요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1시
운전자 안전운전 불공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삼락사(0394)31-4082
일반신도법회 매월22일 오전11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문수사(0396)671-8889
일반신도법회 매월18일 오전11시
청년법회 첫째·넷째 일 오후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법운사(0371)46-130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대불련법회 매주 월 오후7시30분
청년회법회 매월 첫째·둘째 화 오후7시30분
군인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8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2시

보문사(0361)57-7070
청년회법회 매주 목 오후7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향림사(062)375-760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약사사서 하계수련 법회



이두스님(해동불교대학장)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강화도 약사사에서 해동불교대학 의식교육원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수련법회를 봉행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 강의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은 지난 20일 부천 석왕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진로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세계종교 평화회의서 연설



법타스님(평불협 회장)은 지난 24일 미국불교 기독교 학회와 시카고 디폴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종교평화회의에 기조연설차 미국 시카고로 출국했다. 8월5일 입국.

봉축법회 결산보고회



성오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은 지난 1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 봉축위 위원스님과 신도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4·8 봉축연합대법회 결산보고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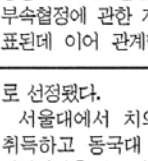
영국서 禪지도위해 출국

지수스님(해남 대둔사수련원장)은 오는 8월3일까지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열리는 불교여름학교에서 화두선지도 및 증도가 강의, 런던 불교협회와 불교공동체 사띰하우스에서의 선(禪)지도를 위해 26일 출국했다.

'삶과 죽음의 의미' 펴내

효림스님(보광사 주지)은 최근 도서출판 행원에서 생활불교시리즈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발간했다. 스님은 〈절에 처음 오셨습니까〉 〈결혼식 사찰에서 합시다〉를 이어 낼 예정이다.

약사전 신축 상량식



원행스님(삼화사 주지)은 오는 8월6일 약사전 신축 상량식을 봉행한다. 이번에 신축되는 약사전은 10년 정화불사의 일환으로 약사철불(지방문화재 제112호)이 봉안된다.

법어집 '짚신은…' 출간



청봉스님(전 동아의료재단 이사장)은 최근 법어집 〈짚신은 있는데 사람은 어디갔나〉를 밀알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스님은 현재 수원의 한 토굴에서 수행중이다.

한일협정 개정안 공청회



김명윤씨(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 상임의장, 국회의원)는 지난 26일 국민운동본부 결성 1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3·3동지회와 공동주최로 '한일협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일기본협정과 부속협정에 관한 개정안이 발표된데 이어 관계학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또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전개' '한일협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 발표도 있었다.

선학원 문제 중재나서



월서스님(조계종 초심호계원장)은 최근 (가칭)선학원수습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맡아 종단과 선학원과의 중재에 나섰다. 스님은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불신이 쌓여있다"며 "교계중진스님들을 주축으로 수습위원회를 결성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스님은 이달초부터 선학원이사를 비롯 교계중진 스님들을 접촉하고 있다.

군승단 하기수련대회



강남석씨(육해공 군승단장)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그산 수련원에서 '96군승단 정기총회 및 하기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인류행복…' 수련캠프 개최

박민수씨(광주 배재학원장)는 오는 8월2~4일까지 영암 월출수련관에서 인류행복화운동회 수련캠프를 개최. 박씨는 인류행복화운동회의 주창자이다.

원조스님 입적

원조스님(팔공산 불굴사 주지)이 지난 21일 입적했다. 스님은 중앙승가대 학감을 역임했다.

제6회 가산학술상 수상



김성철씨(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가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지관)이 제정 시상하는 가산학술상 제6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대에서 치의학 석사를 취득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씨는 '중관논리의 기원에 대한 기초적 연구' 등 다수의 논문과 역서를 발표하는등 중관학(中觀學) 분야에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가산학술상은 연구의 전문성과 독창성, 불교학계의 기여도 등의 평가를 통해 해마다 연구업적이 뛰어난 소장학자들을 시상해왔다.

게시판

▲어린이집 교사·시설장 모집=덕유사회복지관은 어린이집 시설장(시설장 자격자)과 어린이집 교사 5명(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을 모집하고 있다. (032)325-2161

▲파출원 알선=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종실스님)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파출원을 알선해 준다. 일반가사 산모간호 잔치보조 식당 입주전후 청소 등. (042)633-1143

▲자원봉사자모집=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불편한 노인 수발 및 말벗상대가 되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청소년 역사기행=청소년문서포교회(발행인 이지호)는 월간 〈꿈꾸는 새벽하늘(일명 파유)〉의 창간 1주년을 맞아 제1회 청소년역사기행을 마련한다. 날짜는 8월18일이며, 행선지는 전남 화순 운주사 및 담양 소쇄원. (053)755-9614

▲연동사 삼층탑 복원회향식=전남 담양 금성산 연동사(주지 원행) 고려삼층석탑복원 회향 및 일만등 기도불사 입재법회가 8월17일 오후2시 연동사 복원 현장에서 봉행된다. (0684)83-8355

▲'대불' 원고모집=대불련 총동문회 '대불'(이사장 명호근)은 회보 〈대불〉의 제작을 위해 동문들의 주소변경, 경조사, 동문소식 등의 원고를 모집한다. (02)723-9811

▲'진각문학' 원고모집=진각문학회(회장 임병기)는 진각종 창종 50년 기념호 〈진각문학〉원고를 모집한다. 원고는 시·시조 3편이상. 수필 소설 논문 1편이상. (053)629-1331

▲농촌봉사활동=부산불교중·고등학생연합회와 부산불교신도회는 오는 8월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경남 고성군 적성리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한다. (051)464-2020

▲환경사랑 여름캠프=명륜자치복지관은 오는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춘천 중도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강한 푸른이'를 주제로 여름캠프를 실시한다. (0371)762-8131

▲간사모집=우리는선우는 사단법인화에 따른 기구확대로 사무국에서 일할 기획간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대졸학력의 30세 이하 불자. (02)278-8672 이전 불광정각여성대학(학장 안순진) 사무실 (02)394-2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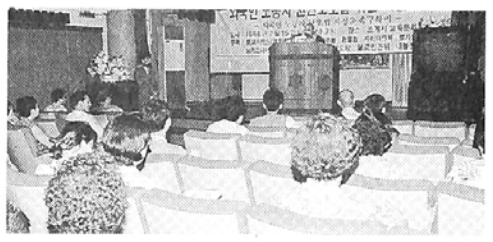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지하스님 취임법회

중앙승가대학 제5대 학장 지하스님 취임법회가 지난 19일 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봉행됐다.

월주(조계종) 홍파(관음종) 혜초(태고종) 대호(법화종) 남정(총화종) 총무원장 락혜 대정사(진각종) 등 각 종단 총무원장, 태응 설조 지명 원산 도법스님을 비롯 주영운씨 개운사신도등 사부대중 2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종교인協 남북합의서 이행 촉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는 지난 24일 신한국당 이홍구대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총재,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 등 3당 대표들과 면담, 남북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지선 청화 효림스님등 대표단은 남북합의서이행촉구를 위한 종교인 887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기원

불교시민단체협의회(회장 법타)는 지난 19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지난 6월1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상담소탄압중지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불교계의 연대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자연 환경보존회 '재활용모임'

대자연환경보존회(회장 성타스님) 부설 한국자원재활용운동본부(이사장 박윤흔)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제1회 쓰고버리는 소비에서 재활용 경제로 자원화하기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김수한 국회의장과 서상목 국회아동환경연맹의장 등에게 재생지 명함과 재활용 비누를 전달하고 환경 재활용 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동대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세미나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회장 김성호)는 지난 20·21일 등명낙가사 특설강당에서 제2차 지도자연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목정배교수의 '청정자연'을 이광준교수가 '정신분석과 선심리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총동창회사무실을 10월경 장충동으로 이전키로 했으며 등명 낙가사에 불사금 9백만원을 전달했다.

부임지마다 군불교 중흥불사

호국원광사 충신도회장 **전상배** 장군



지난 21일 군불교의 총본산이나 다름없는 호국원광사 총신도회장에 취임한 전상배장군(합참민사심리전부장, 55). 전장군은 "깊지 못한 신심이 나태해지면 부처님께서 절 질타라도 하시는 듯 새로운 직책을 주셨습니다. 호국원광사의 신도회장이라는 소임을 맡게된 것도 불교공부를 게을리 하지말고 신심깊은 불자가 되라는 부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전상배장군은 7년전 원주 1군 사령부에서 법당에 우연히 나가면서부터 불교와 인연이 돼 계룡대 호국사, 1군사령부 법웅사에서 각각 신도회장을 맡아왔다. 또 법웅사의 중창불사와 51사단 법당개축불사를 주도하는 등 발령받아 가는 곳곳마다 군불교중흥불사에 전력을 다해왔다. 대북 종교방송을 기획하기도한 전상배장군은 "신도회장에 재임하는 동안 조계종 포교원을 중심으로 한 일사분란한 군불교 지위조직체계를 조성, 군불교포교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상배장군은 90년 1군사령부 정보참모, 92년 51사단 사단장, 93년 육군본부정보참모부장을 거쳐 95년부터 합참본부 민사심리전부장으로 재임중이다.

도필선 기자

90년 전통과 역사의 민족사학 동국대학교

열린 교육의 장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으로 오십시오

일반사회인들에게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맞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발전을 도모케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은 개방된 현대사회에 적응하고 다가올 미래사회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로 구성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여러분이 가진 꿈을 소중히 가꾸고 다듬어 더욱 보람찬 인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96학년도 2학기 입학안내(주간)

1. 개설강좌

1) 교양교육과정 (1주 2시간)

분 야	세부과정명	교육기간	분 야	세부 과정명	교육기간
종 교	불교란 무엇인가	16주	법 률	생활법률	16주
	좌선법의 이해와 연습		경 제	생활경제	
문 화	문예창작		의 학	생활의학	
	연극·영화 감상법		정보·매스컴	광고·카피라이팅 모니터 연수	
	전각 및 서예				
	조형 및 표현기법	1년(주 4시간)	생 활	다 도	

2) 전문교육과정

세부과정명	교육기간	특기사항
불교전문교육	1년제	불교사상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불교전문인 양성
불교경전강독	1년제	불교경전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올바른 불교관과 가치지향적 인격 형성
불교문화재 보수실기	1년제	불화, 단청, 불상등의 제작기법과 불교문화재의 보수, 보존기법을 실기중심으로 학습
불교영어	학기제	불교경전의 영어강독과 기초영어회화 학습을 통해 외국인에게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능력배양
불교원전 (고전어)	학기제	산스크리트의 문법을 익히고, 범어불전독해의 기본능력을 배양

3) 특별교육과정

세부과정명	교육기간	특기사항
불교박물관교육	1년제	전반적인 불교미술문화를 학습하고 불교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증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
동국 TV 불교아카데미	1년제	불교 TV (채널32)를 통한 체계적인 불교전문인 교육

2. 모집대상 및 자격
일반인 남·여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6.7.22 (월)부터 선착등록순 마감 (오전 10시 ~ 오후 4시)
본교육원 교학과 (학술관 1층)

4. 전형방법
교양교육과정 / 선착순
전문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 서류전형과 면접

5.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와 사진 (3cm X 4cm)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단, 동국 TV불교아카데미과정 지원자)

6. 문의처
본원 교학과 / Tel: 260-3727~9 · Fax: 260-3730
주소/㉮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The Institute for Social Relevant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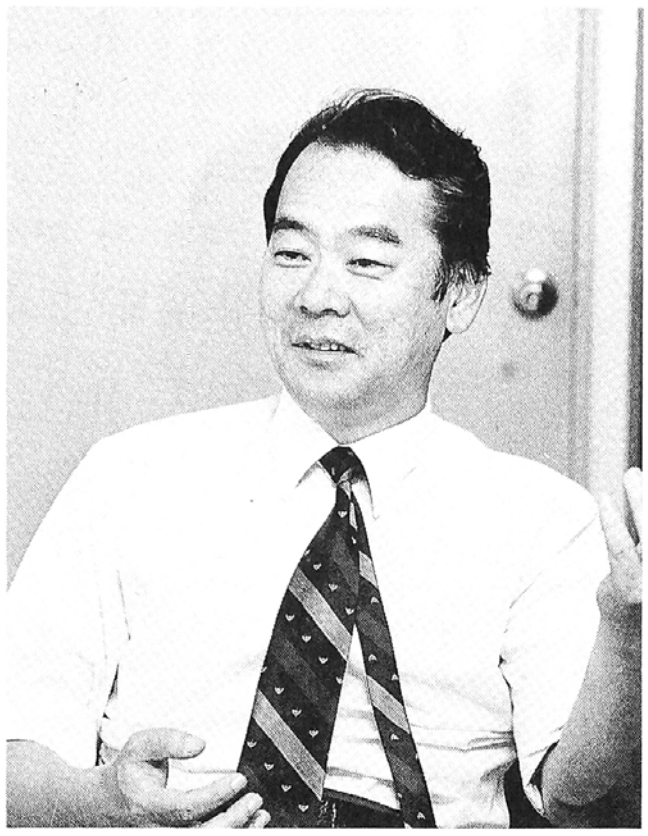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무소유 가르침 정신건강 명약"

산문밖의 선禪

신경정신과醫 **이근후** 박사

의대교수이며 광명보육원 이사
석불찾아 사진 찍고 네팔환자 돌보고
일영에 무하사랑방도 개설한 그는
공동체삶의 가치 전하는 사람



직업은 정신과 전문의사로 대학교수, 아내 또한 같은 대학 교수. 다른 요인은 차치하고라도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이면 상류사회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흔히 갖게되는 계층적인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삶의 시간을 보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이다. 광명보육원 이사이며, 네팔의 환자를 돌보고, 5백여기가 넘는 우리나라의 석불을 찾아 연구해왔다.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에 열정을 보이는 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인격자'라고 말한다. 그가 이근후박사(61세·이대병원 신경정신과)이다.

더우면 옷벗듯 자기관리

이근후박사는 정신분석 치료학계의 원로로 특히 가족 및 부부관계 분야의 권위자로 정평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임상치료의 사례를 책으로 펴내 일반인들도 정신건강에 대해 알기쉽고 유익한 상식의 차원으로 끌어내린 '대중화 의사'이다. 족보를 짚어본다면 고(故) 최신해박사가 1세대라면 이근후 이시형박사 등이 2세대로 꼽힌다.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큰 적(敵)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녀노소의 구별없이 생활속에서 자주 체험하고 있으며,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쯤은 상식이다. 바로 이 스트레스를 안받을 뿐만 아니라 정작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결은 없는 것일까.

이박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주변에 주어지는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더 입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도 주변의 스트레스나 상대 인간의 성격 혹은 기후와 관계를 가질 때 연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건강한 정신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제 성질 제 수준대로만 보고 그 잣대에 맞추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에 안찰라치면 화를 내거나 혹은 꾹 눌러 참게되는데, 이는 모두 혈압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로 쌓여 결국 건강이 균형을 잃게 된다.

이박사는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부처님'을 추천한다. 부처님이 성인이라는 자체로 이미 얘기는 되지만, 정신분석학으로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부처님 생애 가운데 가장 감동적으로 읽었던 대목인데, 6년 고행끝에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는 설법으로 대중교화에 나섭니다. 막 깨달으신 이후의 설법이라 무명의 중생이 어찌 도사(道師)의 가르침을 알아 듣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쓰시게 됩니다. 상대의 근기에 맞추어서 비유와 은유를 쓰고 설화를 들어가며 설법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직 깨치지 못한 중생들이 모두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은 지식의 정도와 관계 없다는 것이 이박사의 주장이다. 오히려 지식인들이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임상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불교에서 애증지물(碍憎之物)을 경계하라거나 무소유를 가르치는것은 모두 정신건강에 명약이라고 봅니다. 가리는 마음, 마음에 낀 욕심을 버리라는 것인데 뜻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하는데서도 부처님의 중생구제법을 잘 활용한다.

"초년 시절에는 내가 배운 방식에다 환자를 맞추어 넣었습니다. 잘 치료되는 환자도 있었지만 역효과를 보았던 경험도 많았지요. 이제는 환자의 심성능력 종교적 사고체계 등을 바탕으로 치료법을 활용합니다. 환자가 치료되는 과정은 구법(求法)과정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비약해서 말하면 작은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치료법에서 중요한 과정이 바로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통찰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교적 깨달음이 보다 거창하고 근원적이라는 점에서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맥락은 같다고 보는 것이지요."

차선책 선택 건강비법

과연 정신과 의사의 정신건강 유지 비법은 무엇일까. 어찌보면 삶의 원칙이 될 수도 있는 이 점에 대해 이박사는 "언제나 차선책(次善策)으로 살아간다"고 답한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참으로 쉽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소극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선책을 택해 살아보니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결과에 있어서도 당초 이루고자 목표했던 바 보다도 더욱 큰 평가를 주위에서 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공식적인 이력 이면의 이력을 돌아보면 차선책으로 살아온 발자취를 확인하게 된다. 초등학생시절부터 즐겨 그림그리고 인정받기도 했던 미술을 재능에 한계를 느껴 대입에서 포기했고 가장 교과서적인 학문이라고 생각되는 의학계로 진출했다. 좋아했던 등산을 하면서 산악인이 되지는 못하고 사진을 찍고 명산 명당마다 있는 석불에 몰입했다. 나아가 전공과 연결지어 석불 속에 나타난 한국인의 심성을 연구하고 있다.

또 하나 좌우명처럼 간직하며 사는 삶의 원칙은 '산 절로, 물 절로'이다. 문법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가훈으로 삼고 있는데, 인생을 마치 파도타기 하듯이 흐르는 대로 따르며 살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최근 이박사는 일영에 '무하(無何)사랑방'이라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석불연구회 모임터도 되고, 꼭 10년을 네팔에서 의료봉사해오면서 아끼게된 네팔관련 문화전시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 공간을 '노인소꿉장난'이라고 표현한다.

무하는 이박사의 호이다. 더이상 그에게는 물을 것이 없다는 단어속에서 중도(中道)의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위영란 기자

"환자치료 구법과정…스스로 병 인정하도록 유도"

명상중 좋지않은 말들이 떠올라…

문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을때나 주인공을 관하고 있을때 엉뚱하게도 좋지않은 말들이 떠올라 당혹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불쑥 '재수없다'는 말이 떠오르고 나중에는 간절히 마음낸다는 것이 '부탁한다'로 이어지곤 합니다. 평소에도 못마땅한 일을 보거나 들으면 먼저 '재수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런 말들이 떠오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경림·경기 과천시 별양동〉

답 엄연히 산 사람인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목석이나 송장이지요. 떠오르는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놓아버리세요.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수없다는 말을 떨치려고 하니까 평소에도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생각이 나는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갖 생명의 의식들이 작용해서 연방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그게 다 한구멍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구멍에다 다시 놓아버리라는 것이지요. 놓으라고 하면 또 애써 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흥! 거기서 나온 것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생각은 쉬지않고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붙잡지 않는다면 흐르고 맙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다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온갖 경계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내면에서 불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괘념치 마세요. 그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 거기다 놓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공부가 무르익어서 그런가보다 하여 거기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보살이 보인다든가 남의 속을 본다든가 하는, 남다르게 신기한 경계가 다가오면 속아넘어가기가 십상이지요. 또 싫어하는 경계가 다가오면 공부가 잘못되어서 이러나 하고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속으면 마장이 되는 것입니다. 스님이 공부할 적에는 가끔 '너 물구나무를 서보아라' 하던가 '내가 서산대사다'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에 솔깃해 하지말고 그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 거기다 되놓고 여여한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으면 됩니다.

참나를 찾고 싶습니다

문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부중생들은 왜 불성을 볼 수 없는지요? 참나를 찾고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어떻게 해야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영경·경기 의왕시 월암동〉

답 늘 말씀드리지만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이 이끄는대로 행하면서 지켜보신다면 체험이 되실 겁니다. 본래 누구에게나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수화풍 사대로 인한 광력·전력·자력·통신력 등이 충만하게 재료로 갖춰져 있고 오랜 과거로부터 짊어지고 나온게 있으니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놓는다면 숙세의 업도 녹아버리게 됩니다. 결코 조급하게 찾으려한다면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한테 본래 주어져 있는데 뭘 찾습니까? 꾸준히 정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無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문 스님께서는 '죽어야 보리라' 하십니다. 거짓나가 죽어야 참나를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아라는 말은 거짓 자기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참나라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석용·서울 강남구 도곡동〉

답 말로써하면 없다는 것은 공하다는 뜻입니다. 처사님은 모든 것을 고정되게 한소리만 듣고 사십니까? 생활하시는데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쉴사이 없이 돌아가니 이거다 하고 세울게 없고 세울게 없으니 무아요 공입니다.

그렇게 세울게 없기에 어떤 스님은 판치생모(板齒生毛)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일 때를 딱 집어서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중생인 나는 있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부터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한 선사께 물었답니다. 도대체 부처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선사가 해골을 하날 던져주며 '이놈아 이거다' 하더랍니다. 그게 도시 무슨 뜻인가하여 몇해를 그 해골을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하루는 해골이 말을 하더랍니다.

'야 이놈아, 너도 나처럼 눈도 빼고 귀도 빼버리고 코도 빼고 혀도 빼고 몸뚱이도 없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 바탕에 이 사람이 홀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곰곰 참구해보면 처사님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해골처럼 우리가 육조·육진·육식을 다 빼놓고 가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냥 송장이고 말지요? 육신으로 송장같이 되어야 죽는게 아니고 나를 앞세운 관념의 벽을 깨는게 죽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놓고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다, 내것이다, 내가한다는 '나' 중심의 의식작용을 다 놓고 주인공이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참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가 비로소 상봉하게 됩니다. 작년 콩씨와 올 콩씨가 둘이 아닌줄 알게 됩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엠프 스피커 마이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표등록 제135828호 외장등록 제413883호 스튜어트 Stuart®

『음향연구가 金文華』가 기기선정 및 구입방법, 앰프 공사를 위한 마이크및 스피커 코드의 바른 배선법 등을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지금 전화 하십시오

법당의 필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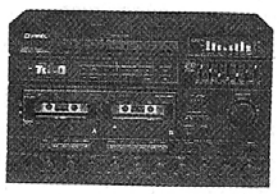


● DX-707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공급가:85,000원

● 고성능 무선 마이크



● TM-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공급가:180,000원



● 법당전용 시스템 앰프 240W출력, 마이크6 스피커 10회로 더블 카셋트 데크



● 방생법회, 휴대앰프 전기/밧데리 겸용



● 행사용 高出力 스피커 용도:각종행사, 대법당 웅장한 음질을 자랑

영등포전시판매장
영등포 유통상가 지하 1층 다열 18, 19호
☎(02)671-9356~7

유 코 전 자
본사:15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TEL:697-9976, 605-3235 FAX:(02)695-9676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부다피아 사이트여행



Journal of Buddhist Ethics

ISSN 1076-9005

Global Resources for Buddhist Studies

Click HERE to suggest new links or to report "broken" ones.

World Wide Web

불교실천윤리지

불교관련 포인트파일 이용 편리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산재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분류해 놓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인터넷을 한참 사용했을때나 가능하다.

포인터 파일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수많은 사이트 중에서 정보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사이트를 분류해 놓고, 이를통해 이용자는 자신이 가야할 사이트를 선택해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포인터 파일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각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분류해 다양한 색인어를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색인어를 선택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또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이트를 구분하는 경우. 불교관련 포인터 파일 역시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불교실천윤리지'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이트를 분류한 포인터 파일을 제공해 주는 대표적인 사이트. 현재 이곳에서는 △월드와이드웹(92개) △고퍼(21개) △FTP(4개) △뉴스그룹(22개) 등으로 불교관련 사이트를 분류해 놓고 있어 정보와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다.

'불교실천윤리지' 주소는 'http://www.cac.psu.edu/jbe/resource.html' 〈옥〉

"日 행기스님은 백제왕족"

홍윤기박사 10년간 사료추적 다시 밝혀

왕인박사 직계 후손 墓誌·승전자료 확인

일본 최초의 대승정으로 나라(奈良)지방의 동대사(東大寺)에 있는 세계 최대 금동불상을 조성한 행기스님(668~749)은 백제왕족으로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준 왕인박사의 직계후손이라는 사실이 다시 밝혀져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역사상 최고의 고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행기스님의 행적과 사료를 지난 10여년간 추적해온 홍윤기 박사(문학박사·일본전수대 前연구원)에 의해 확인됐다.

홍박사는 지난 18일 "천황에 의해 일본 역사상 최초로 최고의 승직인 대승정에 모셔져 지금까지 일본에서 부처님의 화신인 '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행기스님은 왕인박사 후손인 백제계 왕족과 백제여인 사이에 태어났음이 기록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박사는 행기스님이 왕인박사 후손임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료로 나라지방의 죽림사에 전하는 행기스님의 묘지(墓誌) '대승정 사리병기(大僧正 舍利甁記)'와 14세기 초에 간행된 승전(僧傳) '원형석서(元亨釋書)'를 제시했다.

서기 749년 음력 3월23일자 묘지인 '대승정 사리병기'는 '법위(法諱)가 법행(法行)인 행기스님의 죽은 아비의 위(諱)는 재지(才智)로서 본래 백제왕자 왕인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또 1322년 전30권으로 간행된 〈원형석서〉에는 '행기 대승정은 백제왕의 자손으로 천지(天智) 7년에 태어났다'는 기록과 함께 스님의 계보와 가족사항, 포교활동 등을 자세히 적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본은 1992년 출간된 〈일본어대사전〉에 '나라시대의 고승인 행기 스님은 성무천황의 귀의를 받고 동대사 대불(大佛)을 건립한 일본 최초의 대승정'이라고만 밝혔을 뿐 왕인박사의 후손이라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왕인박사와 행기스님과의 관계 등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최근 출간될 홍박사의 저서 〈행기 큰스님〉(자유문학사 刊)에 실려있다. 〈우〉

"裨補사상 환경론과 접목하자"

전통불교硏·도선사 '도선의 생애 사상' 학술회의

민심·지세안정 위해 요지마다 절·탑 세워

무상·혜철 맥잇는 선승…권승 평가는 잘못

도선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가 대한전통불교연구원(원장 김지견)과 도선사(주지 동광) 공동주최로 31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김지견 박사(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논문 '도선의 사문상(沙門像)'을 통해 도선스님은 두타행을 통해 禪을 구했던 훌륭한 선승(禪僧)이며, 이는 도선스님의 법맥이 확실한데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중국 사천성의 정중사(淨衆寺) 무상화상(無相和尙)관계 문헌들이 고증되면서 신라 선종문중의 동리산 개산조 혜철스님(785~861)과 중국의 서당지장(西堂智藏)스님(735~814)의 법맥이 신라 무상(無相)스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만큼 도선스님은 당연히 선승이라는 설명이다. 또 풍수지리의 비조로서 '神僧' 혹은 '權僧'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은 고려왕실이 그들의 불리한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뜻에서 당시 높은 덕으로 백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도선스님을 빙자해 없었던 사실을 날조한 후대 사람들의 문헌에 따른 것이며, 오늘날 이를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김정호 관장(목포농업박물관)도 동의한다. 김관장은 논문 '도선실록과 도선의 오해(誤解)'에서 왕건통일설 등을 비롯한 풍수에 관한 온갖 설화는 禪僧인 도선스님에 대한 도덕적 모독이며 논리의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고려 왕건이 개국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당시 사회풍조와 민중신앙화되어 있던 풍수설과 비보(裨補)론에 기댈 수 밖에 없던 상황에서 도선스님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앞둔 오늘날에는 裨補論을 자연보호와 환경적응 이론에 접목시키는 신토불이(身土不二)의 도선사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흥식교수(정신문화연구원) 역시 '고려중기 사성과 선각국사비의 의의'에서 고려가 시대적 위기를 느낄 때마다 국내외의 선현(先賢)을 추념하면서 이를 극복하려 했으며, 도선스님을 포함해 원효, 의상, 진표 등 고려중기에 건립된 신라 고승 4기의 비(碑)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헌교수(서울대)는 논문 '도선의 풍수지리설과 고려의 건국이념'에서 태조는 유교정치사상에 입각한 국가의 건설방향을 제시했으면서도 왕실기반의 안정을 위해 풍수지리설을 집약한 '훈요십조'와 같은 교훈을 백성에게 내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풍수지리설, 불교신앙, 유교사상, 산신제정신앙(山神祭政信仰) 등 각종의 관념형태로 뒤섞여 이루어진 일종의 혼합기에는 불교를 국교로 천명해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비보사탑설 등은 정책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닌 태조 자신도 이에 대한 깊은 신앙을 보이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라며, 태조代에 개경과 서경에 세운 많은 사탑(寺塔)의 창건 의의와 그밖에 개태사(開泰寺)와 같은 지정학적 요지(要地)에 세운 사탑 등의 의의가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이다.

한편 최창조 전 서울대교수는 '한국 풍수지리설의 구조와 원리'에서 도선풍수의 본질은 한마디로 땅에 대한 사랑이며, 그 방법론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고침(治療)의 추구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 흥미를 끈다.

한명우 기자

◇학술회의 주제 및 발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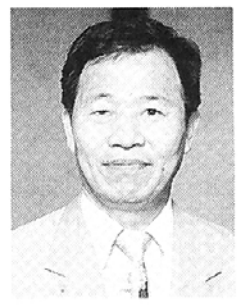
주 제	발표자
도선의 사문상(沙門像)	김지견(정문연교수)
도선국사와 관련한 문화유적	성춘경(玉果박물관장)
도선국사와 도선詩	이광준(동국대)
고려중기 四聖과 先覺國師碑의 意義	허흥식(정문연교수)
선각국사 도선 연구	성본스님(동국대교수)
도선국사 연구	백운스님(미륵사주지)
도선실록과 도선의 오해	김정호(목포농업박물관장)
도선국사와 한국불교	양은용(원광대교수)
도선이전 -그의 쓰지않은 사상-	김용구(한국일보 논설위원)
도선의 풍수지리설과 고려의 건국이념	최병헌(서울대교수)
한국 풍수지리설의 구조와 원리	최창조(전 서울대교수)



◇김지견 박사



◇김정호 관장



◇허흥식 교수



◇최병헌 교수

밝은 마음달 계수나무 베어지고…

백양사

청운당

敎我如何說 吾心似秋月
(교아여하설 오심사추월)
碧潭淸歸潔 無物堪比倫
(벽담청귀결 무물감비륜)
淸光轉更多 狐狸俱屛迹
(청광전갱다 호리구병적)
獅子奮全毛 斫却月中桂
(사자분전모 작각월중계)

가을달 닮은 내 마음에 무슨 말을 시키려나
맑고 맑은 푸른 못엔 견줄 것이 하나 없다
푸른 눈빛 더욱 짙어 여우 이리 자취없고
금털세운 사자 위엄 계수나무 베어지네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해설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게송이다. 맑은 마음자리, 그것은 불성이다. 불성으로 비춰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일게다. 그 자리에서 보는 사물의 세계를 노래한 이 게송은 선열을 만끽하는 해탈자의 쾌활한 풍모를 떠오르게 한다.

이미 첫 귀절에 가을달 닮은 마음을 내세움으로 어느 것 하나 번잡하게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위압을 갖는다. 그 절대성은 두번째 구절에서 견줄 것이 없는 맑은 못으로 세번째 구절에서 여우·이리가 상징하는 간사한 마음의 자취가 허락되지 않는 경지로 묘사된다.

네번째 귀절은 이 게송의 대단원이자 핵심이다. 계수나무를 베어버린다는 대목은 가히 절묘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첫 귀절에서 가을달로 표현된 마음, 즉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 속의 계수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인식의 범주다. 마침내 그 나무마저 베어내는 것은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잘라내 버린 절대적인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상이다. 그 상을 버리기 위해 옛 선사들은 보임의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 동안 선사들은 달 속의 계수나무를 베어냈던 것이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증평 남하리절터 복원시급

석불 훼손된채 방치…화재위험도

충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41호인 증평을 남하리 3층석탑이 있는 남하리사지를 정비·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남하사지의 3층석탑과 불상의 주변은 심하게 더렵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불상이 조각된 암반은 풍화작용으로 크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층석탑을 비롯, 삼보산 기슭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삼보사지 등 유적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증평을 남하리 일대는 지난 93년 지표조사결과 남하리사지 조성배경 등에 대한 연구가치가 높은데다 사찰이 있던 흔적이 발견돼 추후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증평읍 관계자는 "사찰규모와 삼보사지 등 인근 유적과 연계시킬 경우 남하리사지의 복원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데라우치문고 서울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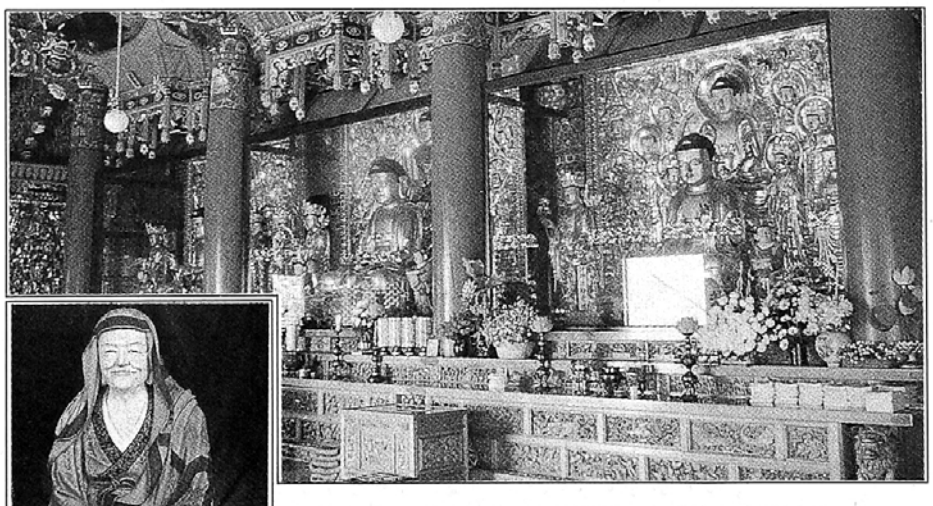
8월25일까지 궁중유물전시관

문화재관리국은 7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올해초 일본으로부터 환수된 데라우치문고 서울특별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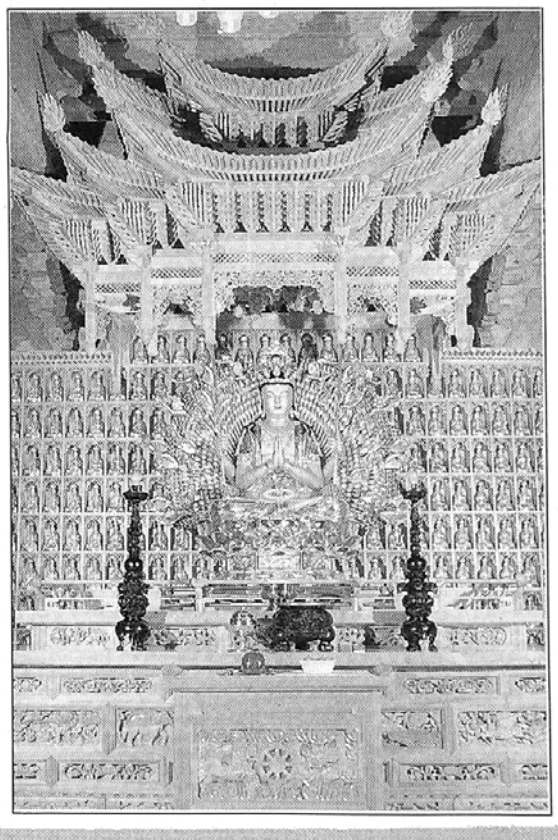
데라우치문고는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1만8천건에 달하는 동양삼국의 역사자료를 모은 것. 이 속에는 고려사를 비롯해 삼국사기, 전하어필(殿下御筆) 등 교지, 문서, 불경, 탁본, 회화 등 우리 유물 1천5백점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 (02)753-2582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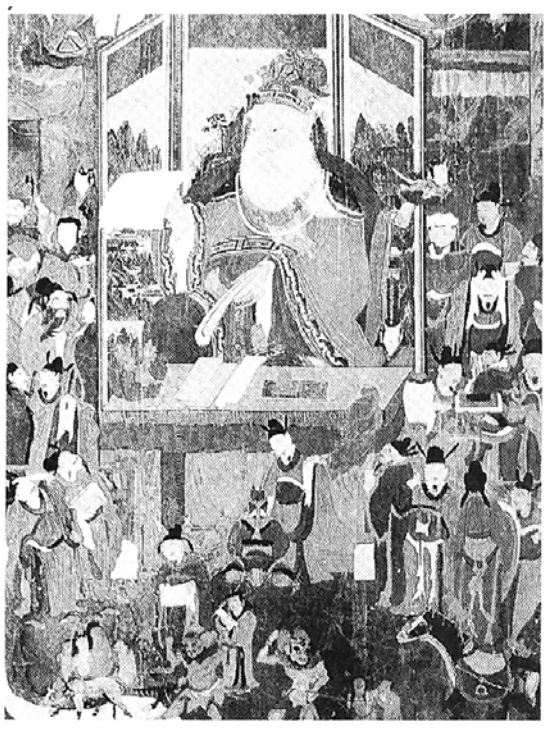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구루신앙 영향 종교지도자 존중

보르헤스의 ㉒ 불교강의

라마불교 ②



◇ 라마불교는 인간 사후의 모습과 윤회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자세히 설명한다. 사진은 지옥도의 한 장면.

승려는 사자(死者)에게 이렇게 독경한다.

"당신의 식(識)은 이제 공(空)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은 무(無)가 아니라 충만한 것으로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며 찬란히 빛나고 가볍게 떨리면서 행복한 바로 식(識) 자체인 완벽한 붓다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눈에 비치는 물의의 달이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같이 그런 자신의 신성을 명상하라고 권한다.

해탈하지 못한 자의 영혼은 두번째 바르도로 들어간다. 죽은 자는 사람들이 방청소를 하고 그의 옷을 벗기는 것을 보게 되며 가족들이 우는 것을 듣는다. 행위가 생생히 비친다. 재판관 염라대왕은 양심이며, 업경은 기억이다.

긴 통과의식이 끝나면 사자는 자기가 어디에 다시 태어날지를 알게 된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독자는 에반스 웬츠(W.Y.Evans Wentz)의 〈티벳사자(死者)의 서(書), The Tibetan Book of the Dead〉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에는 융(Jung)의 유명한 서문이 있다. 책 제목은 이집트의 〈사자의 서〉를 연상시킨다. 보다 쉬운 텍스트로는 '새들에 대한 붓다의 설법'이란 서사시가 있다.

아침 저녁으로 지저귀는 새소리의 합창에서 발상을 따온 것 같은 새들의 회의 장면은 그리스, 페르시아, 영국, 인도

11세기 아티샤가 정법수호·계율엄수 제창

14세기말 개혁이후 몽골등에 전파
승려덕행·교리학습 철저 주장
음악·연극·만다라미술 성행

등지의 문학에 등장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붓다는 신들과, 악귀들과, 인간들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언어로 설법을 하였다고 한다. 이 서사시에서 관세음보살은 뻐꾸기로 화신(化身)하여 티벳과 인도의 새들에게 설법한다. 독수리, 학, 거위, 비둘기, 까마귀, 부엉이, 닭, 종달새, 공작새 등은 각자 삶의 고(苦)와 무상(無常)을 고백한다.

뻐꾸기로 변한 관세음보살은 사회자인 앵무새의 요청으로 그 자리에 모인 새들에게 세상의 실상(實相)이 공(空)임을 깨우쳐 준다. 돌로 세워진 굳건한 궁전도 결국 세월의 풍화작용을 견딜 수 없으며, 일가친척과 친구와의 만남도 하룻밤 함께 빵을 나눈 여행자 사이의 만남과 진배없는 것이다. 육체는 구름처럼 허망하고, 공작새의 찬란한 깃털도 사라지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꿈을 꾸는 것이다. 그 설법에 감화받은 새들은 앞으로 행실을 바로 잡을 것을 맹세한다. 단지 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솔개와 까마귀만이 맹세에 불참한다. 감화받은 닭은 이렇게 말한다.

속세에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행복이란 없다.

이것 저것 해야할 일은 끝이 없다.

육체도 혈액도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다.

죽음의 신 마라는 항상 노리고 있다.

아무리 부자라도 결국 빈손으로 홀로 떠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잃을 수 밖에 없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실체는 없다.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의 프란시스코도 새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가 한 설교는 새들에게 아름다운 옷과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준 신께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라마는 티벳어로 상인(上人)이라는 뜻이다. 티벳불교는 인도 대승불교중 특히 후기밀교(後期密敎)의 구루(上人) 신앙의 영향을 받아 종교 지도자를 존중하는 강한 전통을 세우게 된 것이다. 오늘날 티벳불교의 주된 전통은 1042년 인도에서 입국한 아티샤가 주도한 불교 부흥운동 이후에 세워진 것이다. 티벳에서는 이 시기 이후의 불교역사를 후기 홍통시대(後期弘通時代)라고 한다.

아티샤는 정법(正法)을 수호하고 계율을 엄수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의 사후 여러 개의 종파가 생겨나고, 정법과 계율은 다시 세속권력과 결탁하여 타락해 갔다. 14세기 말 아무드 지방의 촌카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개혁운동의 지도자들은 아티샤의 법맥을 계승할 것을 선언하고, 승려의 덕행을 존중했으며, 밀교의 바탕인 반야(般若), 중관(中觀) 교리의 철저한 학습을 주장했다. 몽골과 중국 동북지방으로 전파된 티벳불교는 아티샤의 개혁 이후 세확장에 따른 것이다.

티벳불교의 종교의례음악은 라마승의 독경과 찬가가 조화를 이루고 기악반주를 곁들인다. 종교음악은 티벳 태음력에 기준한 종교적 제일(祭日) 등에 빠짐없이 연주된다. 또한 라마승에 의해 의례적인 색채가 강한 가면무용이나 자타카(本生譚)를 소재로 한 설화극과 함께 공연되기도 한다.

종교미술로는 밀교 특유의 만다라를 많이 사용한다. 만다라는 사물의 본질, 중심, 우주, 도량을 나타내며, 완전무결한 세계의 상징으로 괘폭에 그려져 사원안에 걸렸다. 만다라에는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이(理)의 세계를 나타내는 태장계와 원과 모(方形)를 짝지어 지(智)의 세계를 나타내는 금강계의 두갈래가 있는데 티벳에서는 후자의 만다라를 많이 사용하였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김 정 환 〈동대부고 교장〉

뜻모르고 외운 관음주력 '수행방편'

"고독 극복해야 깨달음 문턱에 간다" 생활신조



집일이나 들일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시던 어머니. 아침 해를 가슴에 가득 안고 웃으시는 환한 얼굴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었다.

무한한 자유와 어지러운 세태의 탐욕도 질투도 영욕도 다 벗어두고 순수한 마음으로 웃고 일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완연한 무소유의 청정심이었다.

선비 가장을 만나서 가난에 쪼들리고 일에 한이 맺혀 아들을 낳으면 공부는 외면하고 일만 시켜서 배불리 먹고 잘 살아보자는 게 어머님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수용해 주지 못했고 물질문명의 급진한 변모에 한을 남기시고 가신 어머님이었다.

칠남매의 막내인 나는 '무식과 가난'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선친께서는 40여년간 서당에서 한학만 공부하셨기 때문에 세상물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분이었다.

당신께서는 평생 공부만 하시고는 자식은 공부가 필요없다고 분노하신 분, 더욱이 내가 전공하려는 한글과 국문학은 천하게 여기시는 분이었다. 한글은 참새가 모이를 먹으면서 한걸음씩 나아가는 모양을 보고 선비가 뒷간에서 'ㄱ ㄴ ㄷ ㄹ …'을 만드셨다니 도무지 개화기의 신학문에는 전혀 이론이 통할 리가 만무하였다.

초창기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식과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각오로 국문학에 뜻을두고 대학시험을 보기위해 부산에서 야간열차로 새벽녘에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눈이 내려 있었다. 세상을 아름답게 순화해 주는 눈, 영남에서 보기드문 백설이건만 길거리의 미끄러움과 숙소가 없어 밤만 되면 하룻밤을 지새우기 위해 짜증과 불평만이 앞을 서는 형편이라 눈을 보고도 기뻐할 줄 몰랐다.

서울역에서 걸인들과 함께 불꺼진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고, 역앞 판자촌을 찾아가 잠을 자기도 했다. 노자를 아끼기 위해 명동성당을 찾아가 하룻밤을 묵으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여기는 잘 방이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 신부님의 말씀에 앞이 캄캄하였다. 다음에 찾은 곳은 조계사였다. 어떤 노스님께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따뜻한 방을 하나 마련해 주셨다. 거기다가 저녁과 아침밥까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어머님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길이 트인다고 하시던 말씀을 떠올리고 진심으로 불법에 귀의했다. 당장 눈앞의 대학합격이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관세음보살' 염송을 수도없이 했다. 그리고 나는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은 하였으나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좌절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뻔 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서양격언도 있지만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는 곳에 길이 있었다. 성북동의 한 암자에 숙소를 정하게 됐다. 식비는 드리지 못하고 절 일을 하며 애들도 돌봐주고 새벽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어 절의 화목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글을 몰랐던 어머니의 산교훈인 관음주력을 시간날 때마다 했다. 뜻도 모르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주력, 생활속의 끊이지않는 수행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거듭 다짐했다.

물욕이나 명예 때문에 자기를 가두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어머니께선 찾아오는 거지들도 재워주고 밥을 주고 웃까지 입혀주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이요, 무소유의 청정심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물질을 갖고나면 건강을 잃고, 건강을 회복하고나면 자식이 괴롭히는 현실, 자기 기준의 잣대로 이생을 살아가려 하지 않고 상대를 재며 비교하다보니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홀로 자신을 반조하며 제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도 큰 수행의 실천일 것이다.

'고독을 극복해야만 깨달음의 문턱에 이를 수 있다'는 평소의 생활신조가 내 수행의 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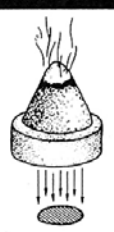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561번지 (한신상가5층5호)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스님)
● 부설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종회
● 전화 (0335)34-9490, 39-1906 이건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02)747-7033
부산지회 (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 (053)323-2598
대전지회 (042)222-493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 (0596)73-0039
경남마산지회 (0551)23-9016
경남울산지회 (0522)74-7536
창원지회 (0551)62-0076
세천당양지회 (0443)46-3023
의정부지회 (0351)873-0532
경주지회 (0561)772-3255
강릉 (0391)645-2117
서장지회: 0598-42-8534 광암사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分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⑦

結果鬧到老 對一箇話頭 還沒有弄明白
결과뇨도로 대일개화두 환몰유롱명백
不知什麼是話頭 如何才算看話頭
부지십마시화두 여하재산간화두
一生總是 執着言句名相 在話尾上用心
일생총시 집착언구명상 재화미상용심
看參佛是誰呀 照顧話頭呀
간참불시수아 조고화두아
看來看去 參來參來 與話頭距距背馳
간래간거 참래참거 여화두동서배치

결국 시끄럽기만 할뿐 늙마에 이르러 하나의 화두를 대해도 희롱뿐일게 명백하니 무엇이 화두이고 어떻게 화두를 볼지 알지 못함이다.

일생을 통털어 언구와 명상에 집착하여 화두아닌 화미에만 마음을 쓰니

참불하는 이 누구인가를 보라. 화두를 되돌려 비춰보라는 식으로

본다, 참한다의 말 꼬리에서만 오가매 화두와 더불어 반대방향으로 어긋나게 된다.

那裏會悟 此本然的無爲大道呢
나리회오 차본연적무위대도니
如何到得 這一切不受的 王位上去呢
여하도득 저일체부수적 왕위상거니
金屑放在眼裏 眼只有礙
금설방재안리 안지유할

옛사람이 이르기를 차라리 천년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루의 어긋남은 불가하다 하였다.

수행하여 도를 깨침은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쉽다.

마치 전등을 켜는 것과 같아 회통하면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큰 광명을 놓아 만년의 어둠을 싹 가시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회를 잃고 등만 깨뜨려 번뇌가 더욱 증장하게 된다.

有些參禪 看話頭的人 着魔發狂
유사참선 간화두적인 착마발광
吐血罹病 無明大火 人我見深
토혈이병 무명대화 인아견심
不是很顯著的例子嗎
부시흔현저적예자마
所以用功的人 又要善于調和身心
소이용공적인 우요선우조화신심
務須心平氣和 無事無得
무수심평기화 무괘무애
無我無人 行住坐臥 妙合玄機
무아무인 행주좌와 묘합현기

잠깐 참선하여 화두를 본다는 사람이 마경에 집착해 미쳐버리고

피를 토하고 병을 앓으며 무명의 큰 불로 너·나의 소견만 깊어지니

"금가루 눈속에 넣으면 눈만 멀게할 뿐 어찌 대광명이 비춤을 보리오"

那裏會放 大光明呀 可憐啊可憐啊
나리회방 대광명아 가련아가련아
好好的兒女 離家學道
호호적아녀 리가학도
志願非凡 結果功勞一場 殊可悲憫
지원비범 결과공로일장 수가비민

어찌 이런 속에서 본연의 무위대도를 깨닫는다 하겠으며

어찌 저 일체만물에 함이 없이 돌이 아닌 최고의 자리에 나아가 이른다 하리오.

금 가루를 눈 속에 넣으면 눈이 멀뿐인데 어찌 대광명이 비춤을 보리오. 가련하도다 가련하도다.

호시절의 어린소녀가 집을 떠나 도를 배우는 것이 뜻과 원은 비범하나 결과는 한마당 헛된 수고이니 더욱이나 불쌍하도다.

古人云 寧可千年不悟 不可一日錯路
고인운 녕가천년불오 불가일일착로
修行悟道 易亦難 難亦易
수행오도 이역난 난역이
如開電燈一樣 會則彈指之間
여개전등일양 회칙탄지지간
大放光明 萬年之黑暗頓除
대방광명 만년지흑암돈제
不會則機壞燈毁 煩惱轉增
불회칙기괴등훼 번뇌전증

이것이 흔하고 현저한 예가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공부하는 사람은 또한 신심을 잘 조화할 필요가 있고

모름지기 마음을 평안케, 기를 고르게 하고 걸림이 없게, 너와 나라는 아상 인상에 젖지 않게, 행주좌와가 현묘한 기틀에 잘 계합되게 힘써야 한다.

參禪這一法 本來無可分別
참선저일법 본래무가분별
但做起功夫來 初參有初參的難易
단주기공부래 초참유초참적난이
老參有老參的難易
노참유로참적난이
初參的難處在什麼地方呢
초참적난처재십마지방니
身心不純熟 門路找不清 功夫用之上
신심불순숙 문로설불청 공부용지상

참선이라는 이 한 법은 본래 분별할 수 없으니

다만 공부를 지어가는데 초참은 초참대로의 쉽고 어려움이 있고

오래된 이는 그들대로의 난이가 있다.

몸과 마음이 순일하게 익지 않아서 나아가는 길이 맑지 못하매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는 것이다.

龍眼

★ 여름특집

"만법의 시작은 나로부터"

우이 〈캐나다 통린콕연사원 주지〉



일반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불교의 경우 '공부한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신앙생활'과 '공부한다'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바로 이런 차이로 인해 불교가 여타 종교보다 심오하고 어렵다고 일반인들이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교란 돈독한 신심 뿐만 아니라 자기 노력, 즉 용맹정진을 꼭 필요로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적인 자기 노력으로 꼭 쌓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진정한 이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진정한 이해를 이룰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생(生)·사(死)로 인해 얻을 수 밖에 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얻어진 자유는 한 개인이 지닌 특별한 장기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노력하는 불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의 고승대덕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생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이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 생각으론,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감 부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물로부터 생겨난 '여건' '문제' 등과 쉽게 타협하고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 모든 존재물로 부터 생겨난 찰나적이고 그릇된 생각을 끊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눈 뜬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은 '눈 뜬 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며, 내 생각으론, 그가 지금 여기에 앉아 내 법문을 듣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게 있다면,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주변에 의존하며 매끄럽고 현란한 언변에 현혹되기 때문에 '진정한 이해'를 통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편견·욕망등 허상 좇지말고 본성을 찾자"

'진정한 이해' 대상과 벽 허물때 가능 합일은 일체법 열리는 '위대한 하나'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욕망의 세계·형식의 세계에서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해'란 바로 내가 우리이고 우리가 우주이며 따라서 나와 우주가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만법귀일'과도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가지 법의 시작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대각하셔서 대중에게 설하신 진리는 언어와 사고를 훨씬 뛰어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상황을 내가 안다거나 그것에 대해 내 마음이 합일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그 무엇과의 합일입니다.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진리에 내 마음이 가서 닿는다는것, 그것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에 눈 맞추는 순간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 합일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됨이고 그로인해 일체의 법이 순순히 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해'는 대상과 대상사이의 벽을 허무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의견이 합일되는 것, 국가와 국가의 정의가 통합되는 것등이 모두 '진정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이해들이 모여서 큰 이해를 이뤄나가고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집단의 편견을 버리고 큰 화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여섯 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도록 강요합니다. 때론 여섯가지 감각으로 인해 수만가지 욕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꿰뚫어 보고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한 것입니다. 향상되고 발전되려는 의식을 가진 여러분은 자연히 진리의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는 것과 그것을 행동화하여 살아가는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지혜를 개발하여 생명의 본질에 한일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걸맞게 여러분 또한 자기 집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듯이 몹시 서두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욕망은 바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나이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불교에서 '불성은 자기 마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것을 '순순한 빛줄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꼭 봐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빛줄기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또한 분별심이 없습니다. 오직 본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본성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힘없는 법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파도 자체는 바로 물의 인과 연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허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허상은 진실이 아닌것,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허상을 좇아 다니는 우리는 진실과 허실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의 눈은 허상에 혼돈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모습을 볼 줄 알기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변치않는 본성을 보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은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약력

중국에서 태어나 불교에 귀의했다. 그후 캐나다로 건너가 뱅쿠버에 있는 통린콕연 사원에서 주지를 맡고 있다. 이 법어는 작년 8월 통린콕연에 콜상을 새롭게 봉안하고, 행사에 참가한 사부대중에게 설한 내용이다.

난치병 완치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100% 완치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스님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는 중생은 없는지요?
▲ 전국에 난치병을 완치한 자가 수천명에 달합니다.
▲ 온갖 방법 다 써도 실패 한 분

■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 한방 : (053)564-3355

대구 여래 한방

대승보살도의 현장
보현불교조각원

경주남산 (금오산 상선암에서) 보현불교조각원에서 조국통일 세계평화 불국토 건설을 실현 하고져 대승 보살도의 수행으로 혜일 승려가 손수 불사의 현장이면 대한 민국 어디에든 가서 신속히 일하겠습니다

대표 상선암 주지 혜일 합장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기룡 관음상 목탱화
■ 내부장엄 불사 : 가정불단, 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용두, 연설대, 전통사찰문 등 목공예품 일체

주소 : 경주시 경주 남산 상선암 사찰
공장 : 경주시 내남면 용장1리 새마을 회관옆

☎ 0561-745-1921
☎ 0561-745-5888

보현불교조각원

현대불교신서5

반야심경 해설서의 새로운 地平
현대인을 위한

반야의 가르침

송지호 글 / 신국판 / 420쪽 / 6,000원

친근하면서도 어려운 반야심경,
260字가 품고 있는 비의를
현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만나 보십시오.
한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전해석을 축으로 하고 풍부한 예화(例話)와 적절한 인용을 곁들여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엮은 반야심경 해설서.

저자 송지호씨는 군산수산대학 교수로 지내셨고 현재는 금당사 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전을 쉽게 해석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현대불교신서
1. 운수시리소설 마하반야마라일경
2. 대장부론
3. 법화경 강설
4. 육묘법문
5. 반야의 가르침
6. 반야경(가제) 〈근간〉

불서전문출판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성B/D 101호)
TEL. 738-6270, 735-7202 FAX. 733-1016

인터넷 **지상법석** ★

"소유욕과 행복은 반비례"



구날아타나 〈美 비할불교회 초대회장〉

사람들에게 인생을 물으면 그 대답이란 게 모두 비슷할 것입니다. 그 대답이란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구름과 같이 궁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개개인이 마음을 열고 진정 진실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런 궁색함은 말끔히 사라질 것 같다'라며 궁색한 자신의 형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같이 푸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궁색함이 사라지겠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삶이란 무엇이고, 올바른 삶이 왜 불법에 귀결되는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불가에서 말하길 우리는 똑같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달리 태어나 다른 삶을 살고 또한 다르게 죽는 것입니다. 윤회의 법칙은 우리를 부유하고 고결하게 또는 가난하고 미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지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흔히들 사회를 가리켜 끊임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흡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며 무엇인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생산물을 소유하여 소위 행복감을 맛봅니다. 그러나 이 행복감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끝도없는 소유욕은 예전에 느낀 행복감을 감소시키기 마련이거든요. 아마도 부처님이 대각하셨을 때 만연된 삼독(三毒)에 비하면 오늘날 그것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혹자는 자신이 소유한게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삼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삼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밝혀줄 불성 역시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나는 불성을 '열린 마음'으로 쉽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면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셔터를 누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눈을 크게 뜨고 호흡을 가다듬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말없이 피사체를 응시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아 셔터를 누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백색의 큰 화폭과 맞서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모르긴해도 무엇을 그려야할지 쩔쩔매는 경우가 허다 할 것입니다. 설혹 대상물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릴 계획을 가지고 화폭에 담으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쥐고 있는 붓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아무것도 그리지 못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실 밖의 것을 찍고 그린다는 것은 자연스러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란 바로 대상을 잘못 판단하게 하며 망상에 빠지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별심이 우리의 직관을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열린마음은 진리의 형상만을보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모든 것을 제대로 그리고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서원을 세웠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의 삶을 직시하는 순간부터 실망감에 젖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도 분명히 이러한 고민에 빠져 "어떻게 해야 대중들에게 불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지한 대중들을 깨달음의 경지로까지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사부대중의 고통을 벗겨주기 위해 진리의 법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한 개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 계층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중생, 그러니까 진리를 체득하지 못한 모든 생명을 위한 법을 설하신 겁니다. 나는 이것을 대중성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중성'을 세속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을 하는 인류가 부처님 시대보다 더 많은 삼독을 대해야 하는 이유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본질을 배우지 못하고 단지 죽어버린 활자에 얽매어, 그 의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교는 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무는 뿌리, 줄기, 잎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나무, 부드러운 나무, 열매가 맺히는 나무, 잎이 넓은 나무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예를 들어 나무의 뿌리 혹은 열매 맺히는 나무 등을 얻고자 하면 그것을 지키고 키우며 기다려야 합니다. 불교의 진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진리는 그냥 얻어가는 것 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진리로 다가가는 고독한 행진이고 장열한 투쟁이고 고결한 여행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 싹이트고 열매가 맺길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세로 자신의 진리를 기다리는 수행자세를 가져야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기도하고 나무 그 자체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나무와 같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접하는 모든 것에는 필연적으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불법(佛法) 주위에도 수많은 존재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금장식은 시장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진리는 항상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금을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위해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뭔가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솟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그것을 소유하게 하기는 커녕 마음에 고통만 안겨다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는 집착이 없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소유하겠다는 집착마저 버릴 수 있을때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삼독은 삶을 힘들게하지만 불성은 삶을 밝혀줘"

"진리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꾸듯 수행해야죠"

약력

· 스리랑카에서 불교에 귀의해 7년동안 공부했다. 1954년 인도로 건너가 수행에 전념하다가 1968년 미국으로 건너가 '비할 불교회'를 창립, 약 20여년동안 워싱톤을 중심으로 미국내 불교포교운동에 매진했다. 또한 미국대학으로부터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 〈지혜로운 명상〉등.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79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16

쉬뢰딩거의 고양이

상자열기전에 고양이 生死알수 없듯 알음알이로 따지기 이전 空으로 표현

둘이 아니고 하나인 그것을 공이라 부르고 공이 그대로 색이요 색이 그대로 공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설명만으로 사리불이 공을 체득했을리가 없다. 사리불로 대표되는 보통사람들은 말로 차근차근 설명해야 알아 듣기 때문에 하나 하나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첫 마디가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인데 온통 부정하는 말 '부(不)'자를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물리학자들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그 이유를 찾았지만 아무튼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다. 왜 심경에서 '부(不)'자를 반복하여 공을 설명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물리현상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지난번에 법칙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물체가 어떤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해도 틀리는 상태가 물리학적 방정식의 답으로 나타나는데 이 방정식의 답에 해당하는 현상이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상자를 열어 관찰하기 전에는 고양이는 죽지도 않고 살아 있지도 않다. 관찰하는 바로 그 순간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로 나타나거나 죽은 상태로 나타난다. 삶과 죽음은 관찰하는 사람이 창조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50:50%의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그것만을 보고 자기가 본 것만이 전체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의 고양이는 거시적 세계의 존재이므로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을 수 없으니 쉬뢰딩거의 고양이는 비유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자 이하의 미시적 세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쉬뢰딩거의 고양이와 꼭 같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

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말을 일반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현대물리학의 기초를 다진 쉬뢰딩거(Schrodinger)는 '쉬뢰딩거의 고양이'라는 것을 생각해 내었다.

심경처럼 우주전체를 생각할 것없이 쉬뢰딩거는 상자 속에 고양이를 넣어두고 그 옆에 고양이가 먹으면 죽게 되는 독극물을 넣어둔 상황을 설정하였다. 벨을 누르면 독극물이 쏟아지고 고양이가 먹고 죽게 될 확율이 50% 죽지 않을 확율이 50%라면 벨을 누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관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벨을 누른 후 상자를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은 뻔하지만 벨을 누른 후 상자를 열어보지 않을 때 상자 속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흥미있는 일이다.

삶과 죽음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상자를 열면 사람은 죽은 고양이를 보거나 산 고양이를 보거나 둘 중에 하나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사람이 죽은 고양이를 창조해서 본다고 하거나 산 고양이를 창조해서 본다고 해석하는데 꼭 그렇게 설명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다. 열기전에는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어 죽었다고 해도 틀리고 살았다고 해도 틀리는 상태가 물리학적 방정식의 답으로 나타나는데 이 방정식의 답에 해당하는 현상이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상자를 열어 관찰하기 전에는 고양이는 죽지도 않고 살아 있지도 않다. 관찰하는 바로 그 순간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로 나타나거나 죽은 상태로 나타난다. 삶과 죽음은 관찰하는 사람이 창조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50:50%의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그것만을 보고 자기가 본 것만이 전체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의 고양이는 거시적 세계의 존재이므로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을 수 없으니 쉬뢰딩거의 고양이는 비유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자 이하의 미시적 세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쉬뢰딩거의 고양이와 꼭 같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니 쉬뢰딩거의 고양이를 실제의 고양이라고 생각해도 물리현상을 이해하는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쉬뢰딩거의 고양이를 실제의 고양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 실제의 고양이라고 하자. 그러면 창조하기전 또는 선택하기 전의 상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알음알이 지식으로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따지는 것은 고양이가 든 상자를 열어보는 것에 해당하므로 반야심경에서는 알음알이 지식으로 따지기 이전의 그 무엇을 가리켜 공이라 부르고 부정에 부정을 거듭하는 말로 공을 설명한 것이다.

선승(禪僧)들은 "이것이다"해도 틀렸다 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틀렸다고 했는데 이중성이 자연의 본질인 이상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선승들이 옳은 것을 알 수 있다. 선승들이 가리키는 것이나 반야심경이 설명하는 것은 같은 태도이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물리학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화여대 교수 · 물리학과〉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 · 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 : 국반판 256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000원
■ 증보판 : 국반판 352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500원
※ 법보시 하실 사암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 일 화 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우학스님 수필집-
거거는맨날 고기묵고...
이 시 대 베스트셀러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 · 강원 · 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 … 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 책들-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신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 · 사경및 해설 (금강경 · 천수경 · 반야심경 · 법성게 · 화엄경약찬게 · 예불문 · 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 · 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공 고

한국불교의 균형있는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국태민안과 민족문화 중흥을 위해 아래의 한국불교 21개 종단이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 래

대한불교 원융종(총무원장:배일공)
대한불교 삼론종(총무원장:혜 공)
대한불교 총지종(통리원장:이법공)
대한불교 진언종(총무원장:송보인)
대한불교 대승종(총무원장:윤일오)
한굴불교 법화종(총무원장:김광태)
대한불교 용화종(총무원장:이법덕)
천 화 불 교 (총무원장:이희수)
대한불교 열반종(총무원장:김혜근)
대한불교 법륜종(총무원장:이혜우)
대한불교 진각종(통리원장:김락혜)
대한불교 총화종(총무원장:전남정)
대한불교 법상종(총무원장:정경식)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최혜초)
대한불교 조동종(총무원장:윤지명)
대한불교 법화종(총무원장:김대호)
대한불교 여래종(총무원장:김법우)
일 붕 선 교 종 (총무원장:현붕해)
대한불교 일승종(총무원장:김혜정)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전운덕)
대한불교 원효종(총무원장:송무진)

(이상은 무순입니다)

불기 2540년 7월 일

대한불교 종단 진흥회

회 장 원융종 총무원장 배일공
사무총장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

고은 불교대하소설



그 사내의 바다



그런데 그의 뒤를 쫓는 자가 있는 것 같았다. 막 갈대밭으로 그가 들어가려는데 그의 뒤에 쉿! 하는 소리가 났고 참을 재빨리 누이는 소리도 났다.

사내의 동작은 실로 피와 기문이 좋은 들짐승의 본능을 그대로 닮아 있어서 그가 있는 곳에서 훨씬 떨어진 곳의 샛강 강물 위에 굵은 돌을 힘껏 던져 풍덩! 소리를 냈다. 그의 뒤를 쫓던 무리들이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의 돌팔매 던진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사이 사내는 갈대밭을 재빨리 헤치고 나아갈 수 있었다.

그곳은 청나라 군영이 있는 대안(對岸)을 두고 이쪽에서 함부로 거동을 보일 수 없었다. 국경이라고는 하지만 조선영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 있는 감시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이용해서 사내는 그 극경지대가 어느 만큼 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삼았던 것일까. 그는 그곳에서 한가토이 지난번 비로 물살이 빨라진 강물을 애써 태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더이상 뒤를 쫓는 자의 인기척은 없었다. 그는 다시 갈대밭으로 들어가 갈대줄기를 헤치기 시작하였다.

"아니!"

사내는 놀라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갈대숲에는 행색이 귀신형용으로 된 여자 다섯이 개펄진흙을 묻힌 그대로 서로 엉겨 있었다.

"무엇하는 것들이냐!"

라고 사내가 제법 호기를 따어 말하였다. 그것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놀라움을 감춘 호기였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가녀린 말 한 마디가 그의 호기에 대한 반응이었다.

"내가 살리고 죽이고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무엇하는 것들인가만을 이실직고하면 되느니라."

"……."

그들은 더이상 입을 다물고 있었다.

사내가 짐작하기로는 그들은 하루이틀은 실히 먹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말을 붙이거나 말대꾸를 할 기력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사내는 그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실은 나도 세상을 피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옛다!"

라고 그는 그들에게 종지막한 호밀떡 두개를 봇짐에서 꺼내어 주었다. 그들의 눈은 화경만해지면서 그 호밀떡을 찢어서 나누는 것이었다.

어딘지 사람의 기품이 남아있어서인지 그것을 입안에 구역구역 우겨넣지 않고 한 입씩 뜯어먹는 것이 오래 굶주린 주제로는 제법 놀라운 노릇이었다.

사내는 더이상 그들의 신분을 묻지 않고 그 갈대밭의 숨은 곳이 보금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아늑자늑한 느낌마저 드는대로 거기 앉아 있었다.

그때 강 건너의 청나라 초소에서 조총 쏘는 소리가 났다. 총소리는 두번났다.

사내가 갈대밭을 헤치고 가서 압록강 북안을 살폈다. 청나라 병사가 상사와 함께 오리 한 마리를 쏘았고 그 오리를 건지기 위해서 낙배를 몰고 있었다.

그는 다시 여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총소리 때문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한쪽의 호밀떡을 먹은 뒤의 부족과 만족의 느낌조차 걷어치운 채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아무일도 아니다."

사내는 여자들에게 하대(下待)의 말씨 그대로였다. 자세히 보니 개펄흙으로 범벅만 되지 않았어도 매우 아리따운 얼굴이었을 터이다. 그리고 본즉 후줄근한 저고리가 늘어붙은 어깨나 가는 허리 따위가 들일이나 막일을 하는 여자 같지 않게 세련되어 있었다.

"나는 홍장군 병사였다가 이렇게 불쌍하게되어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여기까지 도망해 왔다…내 동료들은 거의 적승으로 갔다…."

이제 사내는 이런 사실을 말해도 좋을 만큼 대담한 뱃장이 되었다. 아니 그 뱃장이란 자포자기와의 안팎이기도 하였다.

그 말에 잇달아 한 눈망울이 유난히 시꺼먼 여자가 입을 열었다.

"소첩들은 정주의 가생들입니다. 정주목사 이근주(李近胄)나으리를 받들다가…소첩들도 홍장군에 내응해서 정주성문을 열기 위해서 몰래 갔었답니다…그런 뒤 목사까지도 관인(官印)과 병부(兵符)따위 다 내버려두고 몸 하나만 말에 의지하여 도망쳤습니다."

"허어."

"그 뒤 소첩들도 홍장군 군사들을 맞이하여 술과 밥을 접대하고 함께 평안도 의거를 기뻐하다가 다시 관군에 몰려서…."

"허어."

그러니까 그들은 정주목의 기녀들이었다. 그렇다면 홍경래군이 선천부사 김익순에게서 항복문서를 받고 관인과 병부를 빼앗자마자 부민(富民)의 재물을 수탈한 죄를 적용하여 그를 감옥에 가둔 뒤 평안도 안주병사와 그밖의 목사 부사 현령들에게 보낸 신미년의 격문의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밤낮으로 시중드는 기녀들이었던 사실과 관련되어 미땅하다.

그 기녀들이 각처의 관아 안에서 뭉쳐서 홍장군의 군사에게 내통을 하는 역할을 맡아 큰 공을 세웠는데 바로 그들이 관군에 뚫려 이런 신세가 된 것이었다.

"너희들 말고 다른 가생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내가 물었으나 "다 죽었을 것입니다" 라는 대답일 뿐이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협기(俠氣)로 사내는 그들을 일어서게 하였다.

그들은 하룻길과 한나절 길을 이리저리 갈 수 있었다. 그곳이 의주땅을 비껴선 용암포 부근이었다. 용케 길을 피할 수 있어서 어떤 기찰의 눈도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사내는 여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였다.

"나는 내가 갈 길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야말로 내 길에 함께 할 수 없으니 어쩌랴…다만 너희들이 목사나 현감을 시중 들었으니 그 대신 이 일대 장사꾼들을 시중드는 것도 과히 무리는 아니다. 장사꾼 중에는 목사 따위보다 간담이 크고 포부가 커서 한 고을은 고사하고 조선과 청나라를 좁다하고 사는 대상(大商)도 있으니 그들과 더불어 종월을 농(弄)함이 썩 괜찮으리라."

이렇게 말한 뒤 그들을 용암포의 한 행수에게 넘겨 행수의 벌채에 몸을 의탁케 하였다.

사내는 목욕시켜서 새 옷을 갈아입혀 놓은 즉 빼어난 인물인 그 기생들을 바친 댓가로 바로 그 행수의 상단(商團)에 속할 수 있었다.

이 일대의 상단이란 체질적으로 한양에 대한 반골이기도 하지만 그 상단이 연경(燕京)이나 남방의 여러 포구를 상대로 하는 무역의 이익 때문에 온갖 탐학의 관리들을 싫어하고 있었다. 그런 상단에는 사내나 기녀를 말고도 홍장군의 병사였던 자나 간부까지도 숨어들어 있었던 것이다.

사내가 그 상단의 모험적인 별단에 들어가 청나라 정부나 조선 관리의 눈을 속여 잠상노릇을 하기 시작한 이래 그의 수완이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는데 청나라 장사꾼과의 시비 끝에 머리를 상해서 이따금 실성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그 뒤로 산동반도에서 떠난 배가 폭풍을 만나 사내는 나배 하나에 동료들과 타고 무작정 동으로 동으로 노를 저어갔다. 끝내 두사람은 죽어서 파도더미에 던져 묻었고 혼자가 된 그는 그때부터 마치 저승의 유황(硫黃)연기와도 같은 짙은 바다 안개 속을 헤매다가 무욕도의 구조로 살아날 수 있었다.

사내가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까지 인담이나 우녀는 그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소석형자도 이름없는 그 사람과의 몇마디 말을 나누는 일이 낯설었지만 함부로 이름을 물어 볼 처지가 아니었다.

사내가 인담에게 말하였다.

"소생의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작 성명부터 알려드리려했습니다만…."

"……."

"노영(盧永)이라 합니다…성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식인지라…어머니는 들병장수였다 합니다. 본디 천민인지라 홍장군을 신령으로 섬겼습니다."

"이 도량에는 귀천이 없소. 그리고 살인한 악인도 좋은 일을 많이한 선인도 똑같이 공부하는 곳이오. 성이 없는 것이야 차라리 잘된 일이오. 내가 새로 성과 이름을 지어줄테니 그것으로 행세하구려."

"예."

"석대해(釋大海)…석가모니불의 큰바다라…이제부터 성은 석씨요 이름은 대해로 하구려. 그대가 바다를 떠돌다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대해라는 이름이 어울리기도 하겠소."

"감사하옵니다. 스님."

"가서 우녀도인이나 소석행자에게도 새 이름을 알려주구려."

인담은 사내 대해를 저 아래 본채인 갈대지붕의 법당으로 보낸 뒤 혼자 중얼거렸다.

"공연한 짓을 했어!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든 고기 한 마리이든 이름이 없어야 하는 판에…이름을 하나 혹으로 붙여주었으니…그저 부를 일이 있으면 어잇어잇 하면 되는 것인데…아니 내 이름조차 버려야 할 판인데 이름을 붙여주다니…."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데 갈대지붕 부근에서 이제까지 이 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가 들리는 것이었다. 틀림없이 사내 대해의 소리였다. 듣지하니 귀에 솔깃한 것이었다.

"저런! 제법일세그려. 저 작자가 보살의 화신으로 여기에 왔단 말인가?"

한번 죽고 한번 살아보아라
한번 굶고 한번 넉넉해보아라
한번 높고 한번 천해보아라
한번 뜨고 한번 가라앉아보아라…

(一死一生 一貴一富
一貴一賤 一浮一沒)

그런데 그 노래 내용보다 그 노래솜씨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풍상으로 이루어진 탁성(濁聲)을 넘어 마치 붓글씨 갈필(渴筆)끝에 새 먹물을 듬뿍 묻힌 글씨처럼 저녁 밀물같은 낭랑한 소리였다.

그림 · 조향숙

> "공연한 짓을 했어.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든 고기 한마리든 이름이 없어야 하는 판에…아니 내 이름조차 버려야 할 판인데 이름을 붙여주다니…"

"내가 새로 이름을 지어줄테니… '釋大海'로 행세하구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편집에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포교당 안내
소재 : 중랑구 망우동 2층 30평 방3개 대로변
보증금 :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 900만원
☎ 496-1542
호출기 012-759-5052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소재 : 경기도 용인
사찰명: 광제사
—. 40-50대 보살님으로 사찰에서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연락처 : 0335) 34-0664

척추교정 · 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 척추및교육내용 ▶ 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운동요법 건강 지압법
시술도 병행함
장심수 건강연구원
입구장역 543-7306

기도 · 회향 보시 방법지도 지장경독송방법
참회 · 업장소멸과 자녀교육에 도움
가족법회, 건강문제
꿈바위사회교육문제연구소
종로구 인사동 179 - 2
(02)739-5007-8

급 사찰부지 및 실버타운 최적지
◈ 서울근교 (잠실역에서 40분거리)
◈ 정남향. 자연경관 수려 (저수지 근접)
◈ 1920평~2500평 (평당 10만원)
◈ 항시 차량대기 현장답사
연락처 TEL. 420-5474~5
B.B 012-272-0025 안태진

광고 · 출판 대행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문의와 상담을 전국 어디든지 환영합니다.
◈ 광고대행 ◈ 신문대행
◈ 기획출판 ◈ 고급인쇄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편집,제작도 대행해 드립니다.
한국비전 전화(02)737-8891~3 팩스(02)737-8894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B/D (을지로 2가)
전화 : 02)266-2629
팩스 : 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당 · 정장
• 의왕(대둔사) 대웅전 수미단 단청 문책
• 서울(백흥사) 법당 수미단 등각 목조합
• 충청(일보사) 대웅전 문책
• 화천(법정사) 대웅전 명부전 문책
• 성남(봉불사) 대웅전 문책 단청
• 충주(상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정작
• 파주(전관사) 대웅전 수미단 등작
• 포천(대원사) 대웅전 문책 단청
• 안양(포전사) 대웅전수미단관음정작정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방
대진(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5-45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여직원 모집
가람기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모단정한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 다음
- 30세 미만
- PC가능자
문의처 : 가람기획
☎ 720-5121

산사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 강원도산사, 경관수려하고 시설 수용 넉넉함
· 조용히 기도하고자 하는 스님이나, 신심있는 불자님들이 오시면 잘 위로해 드림
· 초심 수행자도 환영
연락처 ☎ 0365-461-7294
☎ 0346-592-7315

전통불교의식강좌안내
불교 기초적인 의식과 전문의식(범패, 재사, 불공)을 배우고저 하는 스님은 본사에 신청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약간명. 개별지도함
· 신청기간 : 7월29일~8월10일까지
· 강 사 : 東洲, 元明 스님
홍원사 TEL. 822-1990,1995
FAX. 02) 822-1996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찰운영하실분
위치: 경남 합천군 율곡면 (대구에서 1시간거리)
부지: 1400평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방 3개)
사무실: 12평(방2개)
주차장 : 200평
※ 교통편리, 산세수려 도량내 연못 조경 완비 지장보살 기도 도량
가격은 문의후 별도 협의 연락처 0599-33-4802

여 성

신행활동 사회봉사 방학자녀지도 자기개발

여성불자들 "바쁘다 바빠"

요즘 불자주부들은 바쁘다.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의 학습·생활지도까지 늘어 하루 종일 눈코뜰새가 없다. 게다가 불자주부들은 시간을 쪼개어 신행활동은 물론 자기개발과 봉사활동까지 참여한다.

대부분 여성불자들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역량이 넓어짐에 따라 불자주부들도 한가지 이상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한 몫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계에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소리다.

경불련 자비의 집,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등 무의탁 노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자비의 전화, 마음의 전화 등의 각종 상담활동, 보육원, 양로원 복지관 등 위문봉사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들은 불자주부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전문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 봉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약사보살로써 각 병원의 자원봉사활동, 법회지원, 환경정화운동 등을 비롯 사회 곳곳에는 불자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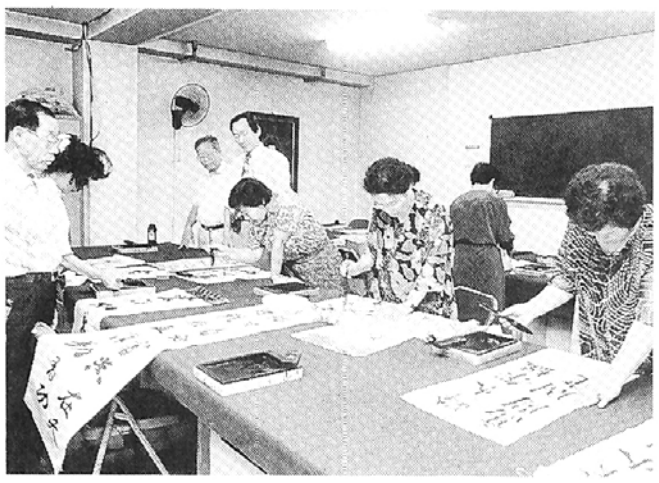
또한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되찾겠다는 불자주부들의 의식이 변화되면서 사찰과 도심포교원, 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개설되는 문화강좌도 각광을 받고 있다.

"소일거리를 배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는 주부불자들의 강좌 참여도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부불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지식습득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개설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현재 교계에는 BBS불교문화센터, 조계사문화센터, 길음복지관, 목동청소년회관 등에서 주부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한달내지 3개월기간으로 상설화되고 있다. 이처럼 각종 교양, 취미, 문화강좌로 진행되는 문화강좌에는 불자주부들의 면학에 대한 열기가 한여름의 더위를 무색케할 정도다.

이들 단체가 주부불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하고있는 강좌는 불교교리, 수지침, 다도, 꽃꽂이, 서예, 노래부르기 교실, 사진, 홈패션강좌 등 다양하다.

지금부터 '무료하다' '할일이 없다'라고 탓하지 말고 시간을 할애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자. 분명 자신의 발전은 물론 가정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최근 사찰을 비롯 각종 불교계 문화시설에는 주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역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법회지원·급식·전화상담등 곳곳서 능력발휘

교계 문화센터 교양강좌서 더위 이기는 면학

김중근 기자

불자 곰탕할머니 55억 부산대 기증



부산 남포동에서 30여년간 곰탕집을 경영하며 어렵게 모은 전재산 5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산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선뜻내놓은 독신할머니 강호녀씨(68세)는 불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동의의료원에 입원중이던 지난 11일 자신의 뜻을 부산대학교측에 알리지도 않은채 공증까지 끝내놓았다. 주의 가족들에 의하면 강할머니는 재적사찰은 두지 않고 있으나 부처님오신날 절을 찾는등 불교를 믿어왔다고 한다.

주부윤락

윤리도덕관 부재 '가정 흔들'

'무료함때문에' 등 쾌락적사고 만연

범사회적 여가문화 프로마련 시급

최근 전국민을 경악케한 가정주부들의 윤락행위와 관련, 우리사회의 성윤리와 여가문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경찰에 연행된 일부 중산층 주부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점과 지역신문등 노출된 경로를 통해 광고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병폐의 깊이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는 개탄의 소리도 적지 않다. 10대 소녀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가정주부들의 공공연한 윤락행위까지 드러난 이상 이 사회는 더이상의 도덕성을 논할 자리를 잃었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어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위봉애박사(을지병원 신경정신과)는 "주부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주부를 탈선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가사와 자녀교육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 수 있도록 주부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이를위해 봉사활동이나 운동 각종 문화강좌 참여등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정신과 전문의들은 주부들의 탈선을 개인의 도덕성 결함보다는 사회적인 병폐로 구분하며 해결책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성취욕구의 충족등을 내놓고 있다.

한편 대한불교 부인회 구자순회장은 "문제의 주부들이 인과의 법만 들었더라도 그런 행위는 못했을 것"이라며 "주부를 건강하게 하는데는 종교의 역할도 크다"고 말했다.

전체 신도수의 약 80%가 여성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불자들이 오계를 잘지키도록 신심을 바르게 심어주고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문화강좌와 시설의 확충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근〉



좋은 책의 산실, 우리출판사가 권하는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 시리즈 탄생!

불교와 역사의 만남, 깨달음의 대하를 온몸으로 헤쳐나간
고승들의 치열한 삶의 역동기!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는
한국불교사에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큰스님들의 삶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우리의
첫 시도입니다.

※ 계속 발행됩니다.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전10권) 시리즈의 특징
1 해당 인물의 시상을 전공한 한글세대 작가들이 집필한 본격고승평전
2 방대한 자료조사와 정기간에 걸친 집필
3 한글세대를 위한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 사용
4 깨달음과 학문의 금자탑을 쌓아올린 큰스님들의 기록한 생애를 현대적으로 형상화한 평전
5 한국 불교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고승 총망라
6 주인공 소개 및 연표, 남방 찾아보기 등 참고서지 첨부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 — 김시습 편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 보조국사 지눌 편
멀어져도 큰산스님 남는 스님 — 성철 스님 편
풍금치는 큰스님 — 용성 스님 편
허공에 매달린 물병 — 부설거사 편
하늘이여, 땅이여 — 이차돈 편

열린기획, 앞선 디자인, 생명력있는 작품.
한글세대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1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김시습 편
2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보조국사 지눌 편
3 멀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성철 스님 편
4 풍금치는 큰스님/용성 스님 편
5 허공에 매달린 물병/부설거사 편
6 하늘이여, 땅이여/이차돈 편
7 부처눈에 부처, 돼지눈에 돼지/무학대사 편 (근간)
8 푸른 암자의 노래/조역선사 편 (근간)
9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경허선사 편 (근간)
10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나옹화상 편 (근간)

• 지금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양장본 / 각 230면 내외 / 각권 6,000원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313-5056
팩스: 393-9696

날마다 좋은날

지묵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지묵 지음/신국판/320면/값6,000원

날마다 좋은날이 되도록 사는 일이 불자의 성립입니다
날마다 좋은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313-5056
팩스 393-9696

생활속의 기도법
훨훨털고 같이가세
도가 본시없는데…
선 백문백답


◇서암스님


◇일타스님


◇진제스님

큰스님 체험 녹아있는 생활법문책 '인기'

최근들어 큰스님들의 체험을 바탕으로한 진솔한 생활법문집이 불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스님들의 법문집이 어려운 교리와 한문의 나열로 현학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최근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몇몇 큰스님들의 법문집은 오랜 수행생활에서 우러난 개개인의 독특한 수행방법과 체험을 현실감있게 소개하고 있어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계종 원로의원 일타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효림)과 〈기도〉(효림)를 비롯, 전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의 〈훨훨 털고 같이 가세〉(정토)와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둥지),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의 〈선 백문백답〉(파란나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일타스님의 〈생활속의…〉는 지난해 말 발간된 이래 줄곧 책방 여시아문 집계 베스트불서에 선정될 정도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기도〉의 후속편. 〈기도〉가 일타스님과 주변 스님·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을 모은 책이라면 〈생활속의…〉는 기도인의 자세와 구체적인 기도법에 대해 예화를 들며 설명한 신행 안내서다.

〈기도〉의 좋은 반응과 불자들의 요청에 의해 발간된 〈생활속의…〉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기도의 기본원리와 방법, 불보살의 가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행하는 특별 기도 성취법, 죽은 이를 보다 좋은 세계로 인도하는 영가천도의 묘법과 천도하는 이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깊이있게 제시하고 있다. 일타스님은 "기도 성취의 비결은 '간절 절(切)' 자에 있고 '간절 절'은 삼매로 통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기도가 삼매를 이루어 오랜 시간 계속되면 곧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한다.

생활禪을 강조하는 서암스님의 두 법문집도 인기가 높다. 지난해 말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출간된 서암스님의 회고록 〈도가 본시…〉(이청 엮음)는 7개월 여만에 6쇄를 거듭하고 있으며 지난달 발간된 〈훨훨 털고…〉도 벌써 베스트 불서에 진입했다. 법랍 65세, 세수 83세의 고령에도 검소하고 소박한 수행정진으로 선승의 사표가 되고 있는 서암스님은 생활속의 참선수행을 바르게 깨우치는 꾸밈없는 진실한 법문으로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이 논두렁 밑에 잠시 앉아서 한 생각을 내면 그 사람이 스님이고 그곳이 절이며 그것이 불교"라는 서암스님의 법어는 道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어려운 법문만이 진리가 아님을 웅변해 준다.

참선과정의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주는 진제스님의 〈선 백문백답〉도 어려운 선문답을 담고 있으면서도 수행과정에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을 체험적으로 설명해 수행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들 불서들의 공통점은 불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큰스님들이 자신이 체험한 깨달음의 내용을 포장없이 들려주는 실용 신행서란 점. '어렵지 않으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이같은 법문집들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간절한기도 삼매·깨달음으로 통한다"
진솔한 예화·생활禪등 실용 수행서

한국사찰의 주련 I — 권영한 지음



화제의 책

본지에 인기리에 연재중인 권영한씨의 '한국사찰의 주련(柱聯)'이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스테디불서인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의 저자이기도한 권영한씨는 20여년 전부터 전통사찰을 골라 사진과 함께 싣고 해석을 달았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고자(古字)와 초서체가 많아 판독과 해석이 어려운 고찰의 주련을 경전의 원문과 스님들의 도움으로 해독해 사료적인 가치도 크다. 저자는 "조

300여 사찰주련 해석·사진 모음서

의 현판과 주련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수집한 3백여곳의 사찰 주련을 모아 번역해 〈한국사찰의 주련〉을 펴냈다.

이 책은 글귀의 뜻이 감동적이고 심오한 고찰의 주련을 용한 고찰을 찾아가 기둥에 걸려있는 주련의 글귀를 가만히 읽어보면 한없이 큰 환희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렁인다"고 말한다. 모두 3권으로 나올 예정.

〈전원문화사 1만원〉

"참선으로 하느님 만난다"
분도출판사 '그리스도인의 참선' 등 펴내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분도출판사(대표 김구인 원장신부)가 〈불교의 이해〉(케네스첸 저, 1962) 〈선과 성서〉(김윤주 저, 1994)에 이어 〈그리스도인의 참선〉을 출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번역 출간된 〈그리스도인의 참선〉(김규돈 역)은 불교를 연구하고 선불교와 그리스도교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온 일본 도쿄 소피아대학교 종교연구소 윌리엄 존슨 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선의 기법은 신앙을 돈독히 하려는 그리스도인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아래 이 책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불성이 있다'는 선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禪(그리스도인의 無我 상태)을 통해 '내 안에서 가장 깊고 참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다'라는 식의 신념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분도출판사의 불교관련 서적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명상에 선불교의 방법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물론 두 종교는 동등한 가치와 고귀함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한편 지난 62년 이래 〈중국종교와 그리스도교〉(줄리아칭 저) 〈유교와 기독교〉(줄리아칭 저) 〈도교사〉(구보 노리따나 저) 〈선도〉(이남영 外 저) 등 가톨릭 이외의 종교서적과 비교종교서를 꾸준히 펴낸 분도출판사는 종교 상호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의 검토를 통한 상호이해와 정보 교환, 그로 인한 상호간의 자극과 변신을 모색해 왔다. 이같은 노력은 종교간의 그릇된 독선과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획의도다.

「만화손오공」 상·하 펴내

동쪽나라(대표 김형균)는 중국 4대 기서중의 하나인 〈서유기〉를 극화 한 만화 〈파이팅 손오공〉 상·하권을 펴냈다.

이정문 화백이 월간 〈동쪽나라〉에 4년 동안 연재한 만화를 엮은 〈파이팅 손오공〉은 원작 〈서유기〉에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훈적인 부분을 골라 엮은 책이다. 불경을 구하기 위해 천축으로 가는 현장스님(삼장법사)과 손오공을 비롯한 제자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천축에 도착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유머와 풍자로 그려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바른 마음을 키운다.

출판소식

「한국의 비경」 개정판 발간

도서출판 대원사(대표 차민도)는 지난 92년 발간된 〈한국의 비경〉 '설악권'·'동해안권' 편의 개정판을 4년만에 동시 출간했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시리즈로 엮어낼 예정인 〈한국의 비경〉 시리즈는 전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집대성해 새로운 형태로 꾸민 드라이브 코스 안내서. 칼럼니스트인 최동욱씨가 기존 여행 안내서와는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취재하고 정리했다. 각권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2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3	전생여행	김 영 우	정신세계사
4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 집 부	정 토
5	기도	일 타	효 림
6	영원한 대자유인	강 정 진	경 서 원
7	부처님의 유언	공 파	태 일
8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9	붓다 꺼지지 않는 등불	장 부아술리여	시 공 사
10	불교 절에 대한 바른 이해	청 암	우리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대반열반경

불교를 접한 지 십년쯤 되던 80년대 후반, 나는 큰 낭패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제법 불교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과연 더 평화로워졌는지에 대해서라면 별반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근본불교부터 꼼꼼히 새로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그럼으로써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알고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고도 단순한 것이었다.

그같은 새로운 눈뜸은 주로 〈법구경〉 〈숫타니파타〉 〈아함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경전이 남전(南傳)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 최후 수 개월 간의 행적과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부처님이 일생동안 전심전력으로 가르치신 불법을 수호해 불교가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거기에는 세존의 인품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나는 성자를 묘사하는 기록으로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품위있으며, 영원한 빛이 스며 있는 종교 문학을 알지 못한다.

〈대반열반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은 대승경전에서 묘사되고 있는 부처님과는 매우 다르다.

등의 아픔을 고백하시는 장면이라든가, 열병이나 배탈로 고통을 겪으시는 장면, 평생 자신을 시봉한 아난다에 대한 자상한 위로와 배려, 반열반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스밧다를 가르치시는 자비심 등 인간의 피와 살을 지니셨던 바 부처님의 인품이 매우 사실적이고 감동적으로 묘파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처님께서는 하늘과 인간의 영원한 스승답게 끝까지 진리의 등불을 놓치 않고 계심도 볼 수 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만을 굳건하게 견지하셨고, 또 그것으로써 그것을 극복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나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입멸한 이후에는 법(法)과 율(律)이 너희의 스승이다"라



김 정 빈
〈작가〉

"반열반 드시는 완전한 삶등 부처님 인품 생생하게 묘사"

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다.

또한 당신의 평생에 걸친 가르침을 잘 요약하여 정리하신 후 '무상(無常)'과 '정진(精進)'이라는 두 마디 말씀을 남기신 뒤, 스스로의 선정력을 통하여 마침내 저 완전한 최고 최후의 경지인 반열반에 드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 분의 완전하신 삶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완전하신 법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근본 경전들을 음미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부처님의 근본 수행법인 위빠싸나(Vipassana)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불법의 맛, 불법의 평화, 불법의 진실, 불법의 아름다움, 불법의 고귀함, 불법의 기쁨, 불법의 확신에 약간이나마 접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나온 책...

▲불교의 실상과 역사 上·下(김종명 저)=김종명씨(전 불교신문 주필)가 해박한 교리와 선지(禪旨)를 바탕으로 꼼꼼한 자료를 곁들여 엮은 불교입문서. 재가 포교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응용하던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KBS의 '종교시간'과 '마음의 등불' 시간을 통해 강의한 내용과 신문 잡지 기고문을 비롯, 그간 국내외 불교계의 현황을 중심으로 초심자들의 다양한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신아출판사 각권 1만2천원〉

▲풍금치는 큰스님(박상륭 저)=한글세대를 위한 고승 시리즈 제4권 용성스님편. 용성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어려운 경전을 쉽게 읽히기 위해 역경사업에 힘쓰는 한편, 도심 포교당을 세워 산중에서만 행해지던 참선을 일반이에게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 불교의식을 한글로 행하기도 했으며 처음으로 찬불가를 지어 풍금 반주에 맞춰 부르게 했다. 〈우리출판사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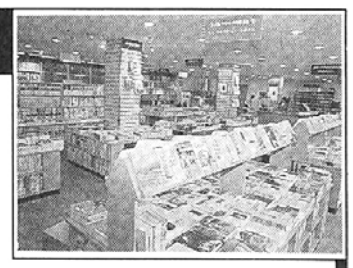


▲나의 인생 나의 학문(김원용 저)=국립박물관장 학술원회원 등을 역임한 고고미술사학자 고 三佛 김원용박사(1922~1993)가 남긴 산문을 한데 모은 수필집. 40여편의 수필과 병상에서 인생을 돌아보며 쓴 글들에서 만년에 더욱 짙어진 불교적 사유의 단편들을 보여준다. 〈학고재 8천2백원〉

▲참선교육(현담 편역)=조계종수선회의 참선교육 지침서. 참선의 종류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령, 화두 참구법, 선종발달사 등을 소개했다. 동안거 체험담과 우리나라의 고승들, 조계종단의 대표적인 선사를 비롯 선사와의 백문백답을 실었다. 〈수선출판사 5천원〉

▲양애란 이야기(강정화 정리)=곶과 나무들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고 한번 친견하는 것만으로 오랜 지병을 치료하는 등의 특별한 능력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어 온 양애란 보살(45)은 자신의 극적인 삶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이뤄졌다고 말한다. 그녀의 삶과 생각들을 정리했다. 〈한문화 6천원〉

불을 가득, 법향 가득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 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불교문학이란 불교를 위한 문학인가, 불교인에 의한 문학인가. 꼭 스님이 등장하고 불교적인 어휘가 들어가야만 불교문학으로 간주되는가.

총 1억3천만원이라는 획기적인 고료를 걸고 실시하는 불교문학현상공모 마감이 앞으로 꼭 3개월이 남았다(공모기간 10월말까지, 본지 68호 13면보도). 많은 기성과 신인작가들이 이번 현상공모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불교문학에 대한 개념정리는 아직 생소한 편. 이번 공모를 통해 훌륭한 불교문학작품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불교문학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산사에 마련된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일 산사는 원주 치악산 구룡사. 오는 8월 9~10일 양일간 펼쳐지는 '산사에서의 불교문학과 문학동호인의 만남'은 불교문학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 관심을 모은다.

시인이며 소설가인 고은씨(불교문학현상공모위원장)가 '깨달음과 문학'이란 주제를 갖고 기조 발제를 하고 최원식(창작과비평사 주간) 김성동(작가) 도정일(평론가, 경희대 교수)씨가 각각 불교문학 전반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소설가 이문구씨가 초청 토론자로 참가하며 참석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고은씨


◇최원식씨


◇김성동씨

산사서 만나는 깨달음과 문학

불교문학인 한자리 모인다

8월9·10일 원주 구룡사
고은·최원식씨등 동참

이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기획실장 현응스님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8월 8일까지 선착순 60명을 접수한다.

문의 (02)737-9684 〈경〉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전통염색 기법의 하나인 쪽염색에 관한 실습을 겸한 강좌가 8월1~3일 열린다. 사진은 성파스님이 쪽에서 염료를 추출하기 위해 옹기에 넣는 모습.

통도사 서운암서 '쪽물염색' 강좌여는 성파스님

紺紙 6백년만에 재현

8월 1일~3일 섬유전문가등 70여명 초청
쪽베기·염료추출·발효등 염색 실습강의

전통염색기법의 하나인 쪽(藍·마디풀의 일종)염색에 관한 문화강좌가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다. 성파스님(58·통도사 서운암 주지)은 8월1일부터 3일까지 염색연구가, 미술 및 섬유계통의 교수 등 70여명의 관계전문가들을 초빙한 가운데 서운암에서 전통염색 문화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쪽베기, 염료추출, 발효 등 염색실습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를 통해 성파스님은 6백년만에 재현해낸 감지(紺紙)도 공개할 예정. 한지에 여러번 쪽물을 들인 감지는 사경을 하거나 탱화를 그릴 때 사용되던 신비의 종이로 알려져 있다.

"쪽물염색을 하면 좀이 쓸지 않고 변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파스님은 "짙게 물들이면 가을하늘(쪽빛)색이 나고 옅게 물들이면 고려청자의 비취색이 난다"고 덧붙인다. 특히 옛날에는 쪽의 독특한 약효로 인해 벌레가 생기지 않고 뱀이 근처에 오지않아 군복염색에도 많이 사용됐다고. 쪽의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 감지는 불생불멸하는 불법의 진리를 표현하는데 안성맞춤이었다.

스님이 감지를 재현한 것은 불과 5년전. 쪽물염색은 삼국때부터 쭉 있어 왔으나 주로 천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지 염색은 불교가 탄압받으면서 맥이 끊어졌었다.

스님이 쪽염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경공부를 하다 우연히 금니사경에 뜻을 두면서부터다. 금니사경을 하자면 감지가 있어야 했고 감지를 만들자니 쪽염색을 알아야 했다. 스님은 쪽연구를 위해 경상도와 전라도의 쪽재배단지를 찾아다녔고 중국 일본 등 쪽이 있는 곳이면 천리를 마다않고 달려갔다고 한다.

서운암 야산을 개간해서 쪽밭을 일구기도 한 스님은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등 관련문헌도 샅샅이 뒤졌다.

김지애교수(58·효성가톨릭대 미대 전통공예과)와 함께 한국천연염색보존연구회도 만들어 연구에 깊이를 더했다. 스님의 기법은 쪽염색전문가인 최차주씨(작고)와 부산의 이점수할머니(80)의 고증을 받은 것. 또한 3~4월에 심어 7~8월에 거두어 들인 쪽잎을 물에 넣은 다음 나뭇가지 등을 태운 잿가루를 넣어 발효시켜 최종염료를 추출하는 것으로, 불교미술 관계자와 섬유전문가들에게 차례로 보인 결과 '완벽한 감지'라는 평가를 얻어냈다.

성파스님은 "감지재현의 전과정을 수행으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해 전통생활문화 재현을 위해 노력할 작정"이라고 밝힌다.

서운암=이윤호 기자

불심시심 〈58〉

흐림 갬 없다

珠爲臺殿玉爲林 구슬로 전각 짓고 옥은 숲 이루니
(주위대전욕위림)
人是純陽地是金 사람은 순수한 양기요, 땅은 모두 황금
(인시순양지시금)
華雨長飛無晝夜 꽃비가 길이 날아 밤과 낮이 없으니
(화우장비무주야)
風雨那復屬晴陰 비바람 어찌 있어 맑음 흐림 있으랴
(풍우나부속청음)
池中菡萏分光色 연못의 연꽃 색깔 각기 달리하고
(지중함담분광색)
樹異頻伽奏法音 숲속의 가릉빈가새 진리 음악 알리네
(수리빈가주법음)
淨土十方雖勿量 서방의 정토 비록 한량 없지만
(정토시방수물량)
彌陀誓願獨弘深 미타의 서원이 더 넓고 깊다
(미타서원독홍심)

백암선사의 정토찬의 일부이다. 정토의 궁전은 모든 것이 백옥으로 장식되었다. 전각의 옥일뿐만 아니라, 모든 숲 자체가 옥이다.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순수한 양지에 사는 사람들 뿐이고 국토의 전부가 황금의 귀함 뿐이다.

밤과 낮이 없으니 흐리거나 갬이 있을 수도 없다. 흐림 갬이 없으니 구름 바람이 있을 리도 없다. 이것이 정토의 세계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빈가는 '迦陵頻伽'로 설산에 살면서 오묘한 소리를 내는 희귀한 새이다. 이 숲에는 이러한 묘음의 새울음만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아름다운 정토의 세계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의 공간이다. 거기에 노닐 수 있다 함이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기에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이 무한 공간의 시방 정토보다도 더 넓은 아미타불의 서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서원이 유독 넓고 깊었다 한 이 시의 결구는 바로 이 정토에 가게 되는 수혜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8번째 수까지는 이렇듯 정토의 아름다움을 여실하게 찬양하고 있는 시들이다.

그러하니 이 정토에 태어나는 이는 이 세상에서의 지극한 선행이 아니고서야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정토는 먼 곳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다. "자기 스스로 귀의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십만리의 여정도 순식간에 이를 수 있다(自家堅固歸心切 十萬餘程一息至)"라 하였듯이 순식간에 이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자신의 염원정도에 있으니 항시 이 염원을 간직함이 귀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캐나다서 영산재 첫공연

8월9일 토론토 구해·일운스님등 6명 참가

우리 불교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영산재(무형문화재 제50호)가 캐나다로 해외공연을 떠난다. 봉원사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가 주최하고 카나다 중앙일보사와 캐나다무용협회가 후원해 오는 8월9일 토론토시 하보드 칼리지엣 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는 구해(무형문화재 50호 준보유자) 일운(〃 전수조교) 고산(〃이수자) 법현(〃이수자) 동성 도경스님 등 영산재보존회 스님 6명이 참가한다.

지난 87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여 유럽과 동남아를 순회공연한 이후 영산재가 북미지역에서 공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소식

혜천스님 판화전
8월20일까지 롯데월드

고려대장경 변상도를 주로 판각하는 류혜천스님(손모음선원장)의 판화전이 오는 8월 20일까지 서울 롯데월드 민속관 갤러리 3층에서 열리고 있다. 양 음판화라는 독보적인 판화영역을 개척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혜천스님의 3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회에는 관세음보살도 후불도 등 1백여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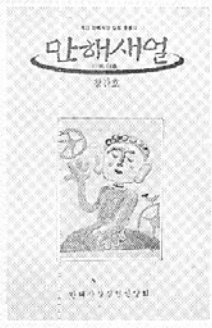
(02)411-4779

인간문화재 공예작품 상설전시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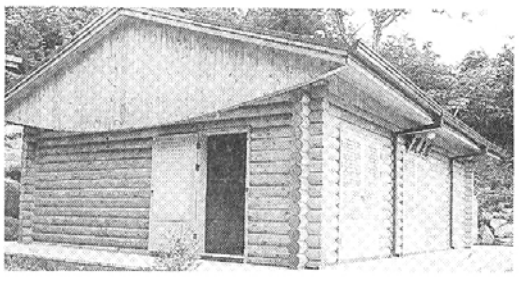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과 전수자들이 만든 공예품을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이 지난 25일 강남구 역삼동(선릉맞은편)에서 개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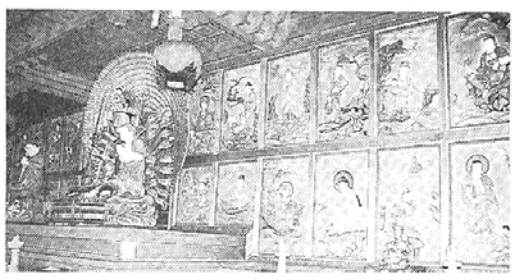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회장 이칠용)가 마련한 상설전시관에는 발우등 옻칠공예 화각공예 민속악기 옹기 금속공예 전통공예품과 각종 문화상품이 전시 판매된다. 개관시간은 오전 9시 30분~저녁 7시30분. (02)501-0087

「만해새얼」 창간호 발간



만해사상실천선양회(상임대표 김재홍)가 발간하는 계간 〈만해새얼〉 창간호가 나왔다. 창간호에는 △창간축하휘호 △창간인사말 △오늘의 만해를 생각한다 △만해새얼시단 △만해발자취를 따라 △내가 좋아하는 만해시 △만해의 불교사상 △한용운의 민중불교 △한용운 전기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02)723-5719


◇통나무를 원형그대로 이용해 못을 안쓰고 짜 맞춰 자연미를 살렸다.


◇후불탱화 대신 법당 벽을 가득채운 관세음보살 32 응신도 부조.

양평 법화사에 '통나무법당'

후불탱 대신 관세음보살 32응신부조

등글등글한 통나무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박하면서도 자연의 멋을 한껏 살린 법당이 최근 선을 보여 화제다. 더구나 이 법당안에는 교계에서는 드물게 후불탱화 대신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을 조각한 부조를 봉안해 이색적인 불교건축의 장엄미를 보여주고 있다. 화제의 사찰은 경기도 양평 법화사(주지 현관).

법화사는 원통보전 응진전 삼성각 등 세 당우를 모두 통나무로 지었다. 원형그대로의 통나무를 켜지않고 쌓아 올려 못을 전혀 사용 안하고 나무끼리 결구해 맞추었다. 또한 나무의 원래 색과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 단청을 안하고 나무기름을 칠해 은은한 멋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신도들이 통나무의 둥글둥글한 모습을 보며 원만자비한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우주만유 원융무애한 불법을 더욱 열심히 공부했으면 한다"는 현관스님은 신도들이 마치 고향집에 온 것처럼 푸근함을 느낀다고 말할 때 무척 흐뭇하다고 전한다.

법당 안에는 후불탱화대신 관세음보살의 32응신도를 부조로 봉안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갖가지 모습으로 화현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부드러운 선과 색으로 처리됐다. 조각은 허길룡씨(동국불교미술인회장). 〈숙〉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봉축법회 식순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재
1. 우란분재의 연원
2. 우란분재란
3. 우란분재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제3부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1. 나복의 출가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간 목련존자
3. 우란분재를 올리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재를 베풀라 하신 참뜻은?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원성군 진언과 부적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3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72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불자의 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크기 3.5cm×10.5cm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서울시 보육시설 20여곳 새 위탁단체 모집

교계 유아포교 '절호기회'

종교단체 참여시 시설등 지원
관할구청 가정복지과에 신청

서울시 보육시설 중 20여개 어린이집이 위탁계약이 끝났거나 새로운 위탁자를 찾고있어 불교계의 발빠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성동구 송정어린이집, 서초구 반포어린이집 서초어린이집을 위탁 공고한데 이어 종로구 창신어린이집, 강북구 미아어린이집, 동작구 흑석 성대골 신대방어린이집 등을 8월말부터 10월까지 위탁공고하거나 선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마포구 합정어린이집 용강어린이집과 구로구 신도림어린이집 개봉어린이집 공사를 착공계획중이거나 공사중에 있다.

이에따라 불교계가 적극적인 보육시설 유치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발빠르게 위탁신청 절차만 밟는다면 서울시 보육시설을 교계 위탁운영체로서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간 약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보육시설 7천6백여개소를 확충, 42만7천여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단체의 보육사업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보육시설 설치시 무상으로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종사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지원에 대한 불교계의 참여와 관심이 촉구됨과 동시에 영유아포교에 취약한 종단 및 사찰, 불교단체의 보육시설위탁운영 활용방안이 과제로 지적된다.

이와관련 가정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교계는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등의 정보교류와 보육시설유치에 대해 소극적인 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국·공립보육시설위탁은 본인부담을 최소화하여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과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보여 시설건립단계에서부터 관할관청의 주무부서 담당자와 접촉하여 해당관청의 의도와 지침, 조건을 사전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는 관할구청 가정복지과.

도필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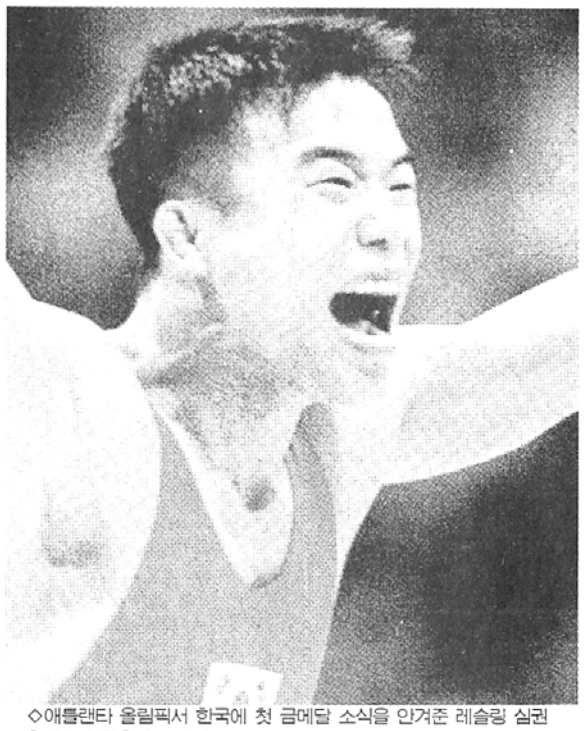


◇지난 20일 개막된 교육개혁박람회에 참가한 동국대 부스에는 발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

동국대, 교육개혁박람회 참가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0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리는 삼성동 KOEX(한국종합전시장) 별관에서 21세기 미래교육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개혁박람회에 참가했다.

'동국100년-비전2006년'을 주제로 참가중인 동국대는 학부제 시행, 선실습을 비롯한 다양한 교과목, 3개 전공학위 취득및 3년졸업제 등록금 차등제등 참사랍을 만드는 열린 교육제도를 대형 멀티비전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애틀랜타 올림픽서 한국에 첫 금메달 소식을 안겨준 레슬링 심권호선수가 환호하고 있다.

올림픽 불자선수 잇단 '금메달 합장'

심권호·전기영·조민선·김민수·정성숙등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 법우들 '승리잔치'

오는 8월4일까지 열리는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불자선수들이 연일 금메달의 낭보를 터뜨리고 있다.

올림픽 1백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지난 22일 그동안 고대해오던 첫 금메달의 승전보를 전하며 우리나라 올림픽출전 통상 1백번째 메달이자 개인적으로도 1백번째의 메달을 획득, 온 국민과 2천만 불자들을 열광하게 만든 이는 선수촌에서도 신심깊기로 소문난 심권호(레슬링 48kg)선수. 93년부터 국내외 대회를 통틀어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심선수는 이번대회 경기내내 심판의 관정이나 관중의 환호에 합장하는 모습으로 답례해 불자선수의 의젓한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관련기사 16면〉

"오직 금메달을 향한 한가지 일심으로 지친 육신을 일으켜 세워가며 훈련에 임한 선수들이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심으로 모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며 지난 태릉선수촌 유도 정상의 자리를 지켜냈다.

또한 항상 염주를 손목에 차고 다니며 틈나는 대로 한마음 법당을 찾곤 했던 여자 유도의 대들보 조민선(66kg)선수도 시원시원한 한판승으로 세계의 강호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세계 정상에 우뚝섰다. 전선수와 조선수는 '95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도 나란히 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 이번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쾌거 또한 뜻깊은 인연의 결과라는 후문.

출전결의법회에서 선수들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했던 남자유도의 전기영(78kg)선수도 발원대로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전기영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발목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출전, 굳은 신심을 바탕으로 한 강인한 정신력으로 업어치기 한판을 거듭한 끝에 은메달을 획득하며 차세대 유망주로 부상한 남자유도의 김민수(95kg)선수와 여자유도에서 동메달을 따낸 정성숙(61kg)선수도 전기영, 조민선선수와 함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애깊은 법우들이어서 이들의 메달 획득 또한 너무나 값진 성과다.

아무리 힘과 기술이 승패를 좌우한다 하지만 불심을 바탕으로 한 이들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앞으로 남은 종목인 양궁, 배드민턴, 체조, 하키 등의 경기에서도 우리 불자선수들이 한마음으로 선전해 메달을 획득하기를 온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종단소식

日천태종 대표단 방한

일본천태종 대표단(단장 이마대가와 교운 일본천태종 교무부장)은 지난 15일 구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예방하고 오는 10월1일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연적사에서 개최되는 천태대사 1400주년 추모 합동법요식에 30명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일 천태종의 우호를 넓혀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함께 일본 천태종 대표단은 인적교류와 문화교류에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자고 말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결속하자'는 일본 천태종 종무청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일본 천태종의 대표단은 단장에 이마대가와 교운스님(일본 천태종 교무부장)을 비롯하여 최준(일본 경도여학원이사장) 후다가와 분고(일본사회단체 마음의 광장 국장)등이 내한했다.

동방대 '법문집' 발간

태고종 동방불교대학 불교학과는 학생들의 법문을 모은 〈법문집〉(2백쪽 분량)을 발간했다.

이 법문집에는 가정극락을 위한 '불교의 올바른 저승관과 사후세계' '대학입시와 관음기도'와 신심의 내용으로는 '마음의 본성' '가난한 사람의 신앙' 그리고 사회정토 구현의 내용으로는 '공양의 의미'등 생생한 체험중심의 내용이 실려있다.

또 논단으로는 '종지종풍의 시안적(試案的) 분석' '제행무상의 심리적 효과에 관한 연구' '티베트의 불교사' '불교의 부녀복지에 관한 소고' 등이 다양하게 수록됐다.

진각청소년수련회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백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호삼청소년캠프장에서 진각청소년수련회를 개최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통한 자아발전과 신심을 고취시키며 야영생활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향상시키기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설악산 대청봉과 그 일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캠페인을 전개하여 청정국토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천했다.

방송가 소식

'황룡사' 등 비디오로

KBS가 10대 문화유산 시리즈로 제작한 '황룡사' '무녕왕릉' 등 일련의 TV방영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출시했다.

'황룡사'는 초석만 남아있는 경주의 빈터에 황룡사를 복원, 역사책속의 무형문화재를 현재 살아 숨쉬는 실존문화재로 편입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던 다큐드라마. '무녕왕릉'은 지난 71년 공주의 송산리에 분포한 고분들에 대한 배수로 작업 중 발견된 무녕왕릉을 다룬 작품으로 서기 500년경 백제의 모습과 고대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에서 백제의 위치를 알 수 있다.

BBS 광고매출 급신장

불교방송 광고매출액이 7월 한달동안 30%이상 급신장했다.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불교방송의 광고료 인상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말까지 7억6천만원 대였던 광고료가 7월 한달간 9억2천만원대로 급증, 1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불교방송측은 이같은 추세라면 당초 올해 목표액 88억원을 무난히 초과, 최대 108억까지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불교TV 중계차 전복

불교TV 중계차가 지난 19일 오후 3시경 '뜰앞의 잣나무' 촬영차 대구로 향하던중 진천부근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스로 인해 전복되면서 5~6m가량 구르는 대형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기술부 양희상 차장이 중상을 입고 현재 한남동 순천향병원에 입원중이며, 방송장비와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앞으로의 제작일정이 연기되는등 불교TV 프로그램 제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 **합본호 1집**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 **가 격** 50,000원 (방송비 별도)
■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목탁소리

방송모니터 꼭 필요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급격한 방송환경의 변화, 본격적인 다채널 시대를 맞아 어느때 보다 비판적이고 깨어있는 시청자 감시기구가 필요한 때가 왔다.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견주어 볼때 그 방송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동적인 모니터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불교방송과 불교TV는 그동안 다른 방송사에 비해 방송사고가 빈번했고, 이로 인해 불교계 방송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다소 흐트러진 것도 사실이다.

불교TV가 지난달 중순부터 불교TV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한 9명의 모니터요원을 구성했다. 더이상 방송을 만들어 내보내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낸 후의 반응과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을 보낸다.

불교방송도 개국이후부터 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아니다.

두 방송사의 모니터 운영이 전문교육을 받은 모니터가 아닌 자원봉사개념의 주부모니터들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여전히 한계성은 남는다. 단순히 방송사고 방지나 방송소감, 비평에서 한단계 나아가 청취자 시청자를 대표하는 모니터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제언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모니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송사의 투자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 양성과 운영을 통해 생긴 노하우를 그대로 방송제작에 연결짓게 될 때 보다 발전적인 방송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방송국의 자체심의기구 점검과 함께 PC통신, 옵서버제 도입등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취자와 시청자들도 스스로 방송을 감시, 비판하는 적극적인 동참자가 될 때 방송의 발전은 앞당겨지지 않을까.

전통사찰 제 74호 영장산 망경암
대웅전 복원불사 및 백일기도 권선문

서울 남산이 훤히 마주 보이는 마애불 (경기도 지정 유형 문화재 제102호)
부처님께 고려조 임금님들이 기도 드리던 유서 깊은 도심속의 전통사찰 망경암(望京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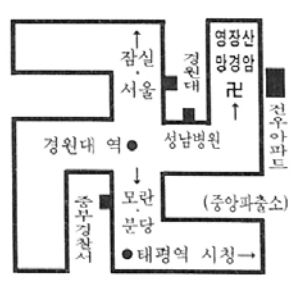
이곳 대웅전이 불기2540.4.7. 밤 0시경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소실되어 이로 인한 아픔을 딛고 빠른 시일내 복원하고져 합니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만 중생이 안식처를 얻는다"합니다. 소실된 대웅전 복원불사 원만성취 기도와 더불어 1997학년도 대학수능시험 백일기도를 하오니 좋은 인연이 될 대웅전 복원불사와 대학수능시험 기도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와 동참을 권합니다.



● 기도시작 : 1996년 8월 6일(음력 6월 22일) 오전 10시
● 기도마침 : 1996년 11월13일(음력 10월 3일) 오전 10시

● 대웅전 불사 권선내용 : 기둥, 주춧돌, 대들보, 석가래, 기와, 용두, 문짝
● 일반시주는 1구좌에 30만원 (5만원×6개월 분납됨) 시주자 현판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온라인 : 국민은행 213-01-0349-715, 우체국 102335-0194943-11 (예금주 : 망경암)
● 대웅전 불사에 동참 하시면 편리하게 시주 하실수 있는 은행 지로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은행지로번호 : 7627758, 시중은행에도 지로용지가 있습니다.)

※ 망경암 약도



대한불교 조계종 영장산 **망 경 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53-1호

※ 문의전화 : (0342)753-3090(사무실)
(팩스)753-3091(주지실)
753-3092(법사실)

현불뉴스

수계산림 일정 확정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일타)는 지난 19일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회의를 갖고 제17회 구족계 수계산림을 10월14일부터 20일까지 봉행키로 했다.

계단위는 또한 사미(니)계 수계산림을 9월22일 해인사에서 열고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은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봉행하기로 했다.

경찰대학 법당개원

국립경찰대학은 지난 19일 용주사주지 정락스님, 정무스님, 이수일 경찰대학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대학 법당인 법화사 개원 및 교직원법우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파라미타 인터넷교육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총재 성타·조계종포교원장)는 8월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파라미타연합캠프에서 인터넷교육을 실시한다.

파라미타는 지난달 18일부터 나우콤에 홈페이지를 개설 파라미타연합캠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bora.dacom.co.kr/~paramita/)

위덕대 군승학교 청원

진각종 종립대인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는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국방부에 제출했다.

두산100년 기념법회

두산그룹(회장 박용곤)은 창업 1백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8월 3일 오후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OB맥주 유병택사장은 지난 25일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기념법회에 월주스님의 법어를 요청했다.

선재 전래놀이 캠프

선재연구모임(회장 법명)은 오는 8월10일부터 12일까지 '어화둥둥-선재들이 만든 부처님 세상'이라는 주제로 경주일대에서 '96선재 여름전래놀이캠프'를 개최한다. (02)433-1507

설조스님 고발 결의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현해)는 지난 24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제11교구 선거관리위원장(설조·불국사주지)과 위원들을 선거업무에 관한 직무유기 및 업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호법부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사찰문화재관람료 국립공원입장료 분리징수 "절대 반대"

공원공단 문화재관람료 인상폭 재조정 요구 대립국면 조장

조계종 '사찰토지 공단시설 철수' 등 자율권침해 적극 대처

지난 18일 관람료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가 결정한 사찰문화재관람료 인상과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남)이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금번 문화재관람료 인상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대폭인상으로 합동징수할 경우 민원이 공단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분리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각 공원관리사무소에 발송하고 매표소위치, 입장권관리 등 분리징수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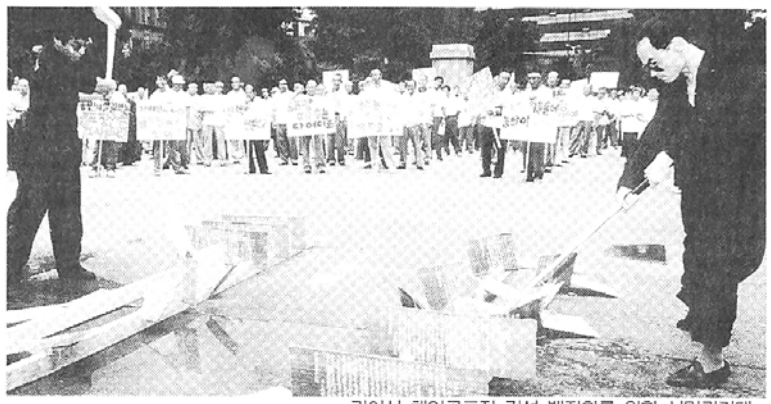
공단측은 또한 관람료의 적정한 인상율을 20%로 제시하고 당해사찰과 협의하도록 지시, 불교계의 관람료제정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같은 공단측의 분리징수추진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5년간 물가인상률은 평균 5.6%, 공원입장료는 6.9%인 반면 문화재관람료는 2.02%에 불과했다"며 "관람료위원회가 종헌 종법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들어 분리징수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합동징수사찰중 한군데라도 분리징수를 강행할 경우 공동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원매표소 등 공단시설을 사찰소유토지밖으로 철수 △문화재관람권없이 사찰소유토지 출입금지 △공단관리소와의 업무 거부등 종단차원의 대응책을 합동징수사찰에 시달했다.

총무원은 또한 "사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문화재관람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뒤늦게 공단측이 공원입장료를 추가 징수해 이중징수의 문제를 일으켰다"며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운동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징수하는 사찰은 월정사 쌍계사 부석사 백양사 화엄사 연곡사 신흥사 법주사 해인사 구룡사 갑사 동학사 신원사 대전사 희방사 백련사 천은사 내소사 내장사 도갑사 등이며 이 가운데 법주사와 갑사 공원관리공단이 분리징수를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현재〉

한편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있는 불교계와 공단측은 분리징수에 따른 분쟁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어 향후 분리징수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이준엽 기자〉



골프로 부서지는 대장경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위한 시민궐기대회가 지난 22일 오후1시 탑골공원에서 해인사대책위, 덕곡면대책위, 환경운동연합 등 8개단체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은처·도박승 척결하겠다"

월주스님, 종정예방 상반기 업무보고

은처승과 승려들의 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이 조계종단 차원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2일 상반기 종무보고차 월하 종정스님을 예방하고 "종단내에 은처승과 도박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종정스님은 "계율을 어기는 수행자는 근절해야한다"며 "삼보정재 수호차원에서 반드시 척결하라"고 유시를 내렸다.

월주스님은 이날 △중앙종무기관 포살정례화 △중앙승가대학의 정규대학 승격추진 및 이전착수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자율화 추진 △가야산 골프장 건설반대 범국민운동 추진 △종단토지사찰 실명화 및 종도세대처등 상반기 업무사항을 보고했다.

주지 재교육 참가율 10% 증가

조계종 상반기 집계 본말사 400여명 연수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이 교역직종무원의 기능향상과 재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전국 본말사 주지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원은 지난 13일 불국사 은혜사 본말사주지 연수회를 끝으로 96년도 상반기 연수회를 마치고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연수회에 4백여명의 스님들이 참석,지난해에 비해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원은 또한 "본사주지를 비롯 중진스님, 삼직스님들의 능동적 참여로 교육열기가 고조되었던 것"으로 보고 "지역의 행정관료들을 강사로 초빙하는등 교육내용이 다양해져 참석자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수원 시설 마련이 시급하고 아직도 교육참가 스님들의 통제가 연수교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교육원은 지난해부터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교육의 이수여부는 교육기록부에 기재되어 주지 재임용시 중요한 품신자료가 된다.

한편 교육원은 향후 연수교육을 연령별,주제별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범어사 토초세등 54억 납부위해 '경외지 매각승인' 총무원에 요청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주지 성오)가 54억여원에 이르는 종합토지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기위해 총무원에 '경외지 매각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사는 "체납세가 2만여평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8억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6억원등 모두 54억여원에 이른다"며 "세금을 납부하기위해서는 경외지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총무원 관계자는 "경외지매각 요청에 따라 지난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종교시설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납세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혀 금명간 토지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계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시주로 이루어진 사찰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토지매각 이외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독신청: 737-0691

정부 '가야산골프장 불허' 표명

李총리 국회서 밝혀 고법결정 번복가능성 주목

이수성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민회의 조성준의원의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을 반대한다는 정부입장을 밝혔다.

조성준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각종 전란에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온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골프장에서 사용될 농약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허가취소 용의를 물었다.

이에대해 이수성총리는 "문체부에서 지난해 허가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며 "정부입장은 가야산에 골프장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화유산과 해인사 보존을 위해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해인골프장 건설에 대해 정부에서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사업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결론이 주목된다.

우리는선우 '사단법인' 대외공신력 강화 계기

재가신행단체인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가 지난 18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우리는선우는 국제선우회 화랑선우회를 비롯한 6개의 목적사업에 더욱 대외공신력을 갖춘 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9월 열린 사단법인 발기인대회에서는 이사장에 박광서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남지심 성태용(건국대교수) 윤용숙(여성문제연구회장) 김인숙(국민대교수) 윤정수(이남연구소장) 정승연(다도연구가) 윤경원씨(코레스코 대표) 등을 이사로 추대했다.

92년 창립된 우리는선우는 그동안 국제선우회 승보공경선우회 선재선우회 화랑선우회 백련선우회 등 6개의 실천모임을 구성, 불교의 생활화와 세계화 인재불사에 주력해 오고 있다.

"백혈병 어린이에 자비를"

생명나눔실천회 수술비등 후원자 모집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백혈병으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이인자양(10, 속초초등학교 4)에게 희망을 줄 후원자를 찾고 있다.

이인자양은 지난 1일 갑자기 쓰러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급성 임파선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여의도성모병원 1110호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시골에서 한달 70~80만원의 생활비로 딸 넷을 키워온 이양의 부모들은 청천벽력같은 이양의 진단를 받고 실의에 빠져 있다. 이양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생명나눔실천회는 항암치료와 수술비, 입원비 등 이양과 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줄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02)734-8050

진흥원 '다보수련원' 20일 개원

故장경호거사 흉상제막식도…1천여명 동참

대한불교진흥원은 지난 20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현지에서 다보수련원 준공법회 및 고 장경호거사 흉상제막식을 봉행했다. 큰법당 봉안식·수련원 준공법회에 이어 기념식수, 흉상제막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불교TV대표이사 태응스님, 서돈각 불교진흥원이사장, 김종호 국회의원, 김환묵 괴산군수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서돈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 불교는 기복신앙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하여 불국정토를 현세에 건설시키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보수련원은 재가불자교육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천5백평의 부지에 법당 수련동 생활동이 들어선 다보수련원은 1백여명이 동시에 수련활동을 할 수 있다.

선암사 환경수호 부산시민 궐기대회

전통사찰선암사도량수호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덕운스님)는 지난 20일 부산역광장에서 백양산자연보호 및 전통사찰 선암사 도량수호 부산시민궐기대회를 봉행했다.

전승련 중앙승가대학 백양산 선암사대책위 금정산살리기시민단체비대위 다대포아미산보존대책위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강제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86억원의 공탁보증서를 불태우는 등 사찰환경보호를 위한 투쟁의지를 다졌다. 또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수용된 토지 천연풍치림의 벌목반대 △강제수용된 토지의 반환투쟁 △부산자연환경보호 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범어사주지 성오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의 개발은 전 부산의 명산을 아파트 유락장 등 시멘트로 덮어 부산시민의 호흡을 멈추게하는 살인적개발정책으로 가시적인 개발이익에만 집착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마음 고정된 모습은 없다

흑러온 것은 흑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찰나찰나로 고정된이 없이 돌고도는 것을 억지로 고정했다고 멀어서는 안됩니다. 찰나에 의식도 흐르고 생명도 흐르고 물질도 흐르고 있습니다. 고정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에도 나라는 생각으로 고정시키려 하고 내것으로 고정시키려하니 고가 따릅니다. 변치않는 것은 고정된이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한마음선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2천만의 깨달음을

나를 바로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제주지사	·전화	064-55-9800
사천지국	·전화	0593-32-5160
강릉지국	·전화	0391-647-9317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전국지사·지국 보급소 모집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법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일할 지사, 지국 보급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1. 자 격 주소지에 3년 이상 거주하신분, 불심이 돈독하여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자필 이력서 1통, 주민등록 등본 2통
3. 대상지역 전국 각 도·시·군·구
※ 광주, 부산, 대구, 목포, 공주, 사천, 제주, 강릉, 부천지역 제외
4. 모집기간 96년 7월1일 ~ 7월 31일
5. 선 발 서류전형후 개별 통보
6. 보 낼 곳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8881, 팩스 : 737-0697

교직자 양성 전문 교육

제20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교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8월 1일 ~ 8월 31일
■ 개강일시 : 1996년 9월 2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삼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教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의 어머니들

"金보다 빛난 모정불심"



레슬링 심권호 어머니
이 화 순 씨



유도 전기영 어머니
김 순 흠 씨



유도 조민선 어머니
최 도 임 씨

애틀랜타 올림픽의 초입부터 금메달의 영광을 일궈낸 심권호, 전기영, 조민선등 3명의 불자선수 뒤에는 일심으로 그들의 선전을 기원한 어머니의 지극한 불심이 밑받침이 됐다. 〈관련기사 14면〉

레슬링 심권호선수의 어머니 이화순씨는 선남 법룡사서 매일 새벽 불공을 드리며 아들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이길 수 있도록 기원했다. 유도 전기영선수의 어머니 김순흠씨 역시 아들의 결승 직전까지 청주 용화사에서 애틀랜타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원한 끝에 아들의 승전보를 접했다. 김순흠씨는 "이국만리 미국땅에서 힘들게 경기를 하고 있는 아들을 TV로 지켜보기가 안타까워 법당의 부처님께 기원을 올렸다"고.

여자유도 조민선선수의 어머니 최도임씨 또한 서울 송파구 혜원도교원을 매일 출퇴근하다시피하며 딸의 우승을 기원했는데 "천수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했다. 딸의 유도 인생 12년이 헛되지 않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은 오직 부처님 전에 기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불안하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때면 항상 법당을 찾아 마음을 안정시켜라"고 아이들에게 일러주었다며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로 이뤄질 수 있었다"고 금메달의 기쁨을 불전에 회향했다. (이은자 기자)

성남 법룡사서 매일 새벽불공
심권호 어머니

TV보기 안타까워 법당서 아들 응원
전기영 어머니

절서 천수경 외며 딸 우승기원
조민선 어머니

죽음을 이긴 어머님 ㊦

주부신행담



그림 · 이준석

형상 벗는일이 고통아님을 보이셨으니 따로 극락왕생을 축원할 이유가 없었다

부처님의 가피로 병을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드렸다.

병원에서는 년말을 넘기기가 힘들겠다고 까무러칠 충격을 선언했지만, 믿을수도, 믿기지고 않거니와 차마, 차마 남아있는 삶의 일정을 누구의 입으로도 꺼낼 수가 없었다. 다만, 어머니 스스로 당신의 내일을 가늠짓고 계실 뿐이었다.

그후 어머니는 고분고분한 아이처럼 약이며 식이요법에 열심으로 매달리시며 감사할 만큼 착찍한 투병생활을 하셨다. 병원에서는 불과 2, 3개월을 넘기기가 힘들겠다고 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더구나, 복부의 부기도 눈에 띄게 가리앉고 환달든 얼굴빛에 차츰 혈색이 찾아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기적은 멀리 있는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서로가 약속이나 한것처럼 품고 있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어머니의 말은 기운을 잃고 힘없이 떨리는 입다임은 눈꺼풀이지 감겨있는 날이 더욱 잦았지만 잠든 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광화 그 이름의 본디 모습이었다. 작은 기적에 대하여 모두들 감사했다.

그러나 폭풍전의 고요가 더욱 두려운 것처럼 일말의 불길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입에서 떼어낸 말이 씨앗이 될까봐 서로가 눈치만 살필뿐, 상태를 거듭 살피고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서로의 심중을 헤아리고 있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자태는 실로 열반에 든 수도승의 그것을 생각케 했다.

신새벽에 흠로 다소곳이 기대앉아 머리맡에 준비된 물수건으로 얼굴 닦으시는 모습을 훔쳐보건 우리는 속울음을 삼켜야 했다. 물수건을 집어들기 위해 팔을 뻗는 동작에서부터 그 물수건이 제자리로 되돌려지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영화기법의 슬로우 모션처럼 후들거렸다. 팔이 너무 야위게, 너무 힘겨워하시는데 필사적인 그 행위가 경건하다 못해 차라리 무모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무엇이었을까.

어머니가 기어코 기대 앉아서라도 치루고 싶었을 의식은.

분신처럼 목에 걸고 있는 염주를 회청이는 손으로 쓰다듬으셨다.

어머니 머리맡에는 나무통지 모양을 한 염주통이 있었다. 그 안에 크고 작은 염주가 수북하게 담겨져 어머니의 손에서 광생토록 길들여진 당신의 유일한 벗인 것이다.

간헐적으로 혼미상태를 빠져나오면 어김없이 염주부터 챙겨 들었다.

알알을 힘겹게 짚어가며 무엇을 소망하셨을까?

안타깝게 육신을 기대앉히고 염주알을 돌리는 어머니의 신심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당신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몇 가닥 남아 있는 머리카락을 손빗질로 곱게 다듬고, 등을 세워 꼿꼿이 앉은 자세로 잠시동안 눈을 감고 말이 없으셨다. 그러한 후에 아이처럼 깨끗하게 웃으셨다.

어머니 모습을 보았다.

허, 숨이 막혔다. 내 어머니 모습은 불치의 암으로 고통스레 돌아가신 불행한 모습이 아니었다.

맑고 고요한 광온이 얼굴 가득 번져 있어 마치 기분좋은 몽중에 취해 있는 듯이 보였다. 입가에 미소를 고스란히 남겨 놓은채로.

그 순간 나는 이미 어떤 이름일지 모르는 보살님이 되신 어머니를 보았다.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설레임이라는 것을. 형상을 벗고 '참'을 통해 길 나서는 것이 그토록 향기롭고 흐뭇할 수 있음을, 그러한 것임을 믿고 있었다.

굳이 극락왕생을 따로 축원할 이유가 전혀 없음이다.

이미 보살이 되신 어머니를 보며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내손에 물려주신 윤기나는 염주알에 부딪쳐 부디 영원할 어머니의 모습처럼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신 경 희
〈수원시 송죽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㊵

METTASUTTA
metta (빠알리어) 자비로운 mettasutta(자비로운 경전) mettacitta(자비로운 마음)

♦ Whatever is to be done by one who is skillful in seeking (what is) good, having attained that tranquil state (of Nibbana):-Let him be able and upright and conscientious and of soft speech, gentle, not proud.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 And contented and easily supported and having few cares, unburdened and with his sense calmed and wise, not arrogant, without(showing) greediness (when going his round) in families.

만족할 줄은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관이 안정되고 총명하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 And let him not do anything mean for which others who are wise might reprove (him); may all beings be happy and secure, may they be happy-minded.

다른 식자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 Whatever living beings there are, either feeble or strong, all either long or great, middled-sized, short, small or large,

겁에 질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치건, 짧고 가는 것이건, 또는 조잡하고 거대한 것이건간에 어떤 생물이든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 tranquil (a) [마음 등] 차분한, 경화로운
* upright (a) 정직한, 고결한 (= conscientious)
* arrogant (a) 거만한, 거드름 부리는
* reprove (v) 비난하다, 책망하다

오중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히말라야의 새 ①
루디아드 키플링 作



그림 · 심민섭

원주민들은 라호르 박물관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의 이름은 아제브 그 혀르였다. 그것은 경이의 집이란 뜻이었다. 킴은 이 박물관의 언저리를 돌며 먹을 것도 구하고 잠도 자고 말썽도 피우는 영국계 소년이고 그의 출생에 대한 내력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의 친어머니는 영국군 대령의 집에서 일하다가 아일랜드 연대의 젊은 상사와 결혼했고 상사는 신드 관할 델리철도회사등에서 일했는데 연대는 그를 인도에 놔둔채 귀국해 버렸다. 상사는 아내가 콜레라로 죽은 이후 주정뱅이가 되었고 아편쟁이 여자를 만나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킴은 어린나이에 들은 아버지의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은 킴의 삶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이기도 했다.

"킴은 아버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초록색 들판의 붉은 황소를 신으로 떠받드는 9백명의 최상급 악령들이 킴을 수행할거야"

그 지역에서 킴은 '전세계의 꼬마친구'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어느날 킴은 티벳에서 왔다는 늙은 라마승과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 라마승은 라호르 박물관에 들러 무수한 유물들을 보며 경탄의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노승은 박물관 장과도 오래동안 얘기를 나누고 나왔다. 노승과 킴은 두 사람의 만남을 서로를 위한 필연이라고 믿었다. 두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아니 노승의 여행에 킴이 따라 붙은 것이다. 노승은 재빠르고 영리한 킴이 자신의 제자로 다가왔음을 기쁘게 생각했다. 킴은 이 지겨운 곳을 떠나 여행한다는 것에 대한 모험심과 노승을 보살펴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발길을 떼었다.

그러나 사실 두 사람에게는 각지의 목적이 있었다.

노승은 '신비의 강'을 찾아 여행하고 있었다. 신비의 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살을 쏘자 그 화살이 떨어진곳에 강이 생겨 그 강물에서 온갖 축복이 흘러넘친다는 강이었다. 그리고 킴은 아버지가 말한 푸른 들판의 붉은 황소를 찾기 위해 노승과의 여행에 동참을 한 것이다. 그들은 떠나기 전날밤 휴식과 돈을 얻기위해 마흐붑에게 갔다. 마흐붑은 편잡지방 최고의 말 중개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인도 측량국의 비밀정보 요원이기도했다.

마흐붑은 킴에게 음발라에 있는 한 장교에게 그가 관 말의 계보가 적힌 종이쪽지를 전달해 달라고 했고 돈도 주었다. 물론 그 말의 계보는 정보문서였다. 킴과 라마승은 새벽길을 도와 기차역으로 갔다.

킴과 라마승은 여행을 떠났다
'붉은 황소'와 '신비의 강'을 찾아서…

작가 소개
인도 봄베이에서 태어난 영국작가다. 영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20대에 다시 인도로 가 7년간 기자생활을 했으며 소설시 스케치에 몰두 했다. 영국으로 돌아와 '정글북'과 '히말라야의 새(원제 킴)'를 발표해 세계적 작가가됐다. 영국 작가로선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불교TV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시리즈 제2집 5선 출시

1 불교TV 개국특집
출가 새로운 탄생
수계산림과 행자교육의 대표적 가람, 공보종찰(佛寶宗刹) 통도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담은 작품. 한국불교만이 간직한 독특한 수행체계와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이 펼쳐진다.

2 불기2540년 부처님오신날 특집
영상포엠 내원사
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선찰으로 널리 알려진 내원사의 아름다운 영상미. 설레친 카메라렌즈에 포착된 내원사의 하루는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버린 산사의 모습 그대로이다.

3 불기2539년 스승의날(5월8일)
산중편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사의 비경과 불도(佛道)를 구하는 이방의 수행자들이 보내는 산중편지. 자신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분 스님의 신년메세지가 눈덮인 산사의 비경과 함께 음악처럼 펼쳐진다.

4 불기2540년 입민절특집
적멸보궁을 찾아
적멸보궁(寂滅寶宮)은 고조(敎祖)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사찰 당우(堂宇)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불자들의 순례지이자, 기도처로서 가장 신봉되고 있는 성지인 5대 적멸보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5 불교TV 개국특집
산사의 향음 · 만등만화공양법회
속세의 달·진·차에서 멀어나 고고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는 산사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곳은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정화하는 청량제와 같은 곳이다. 불기253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만등만화공양법회는 육법공양의식 공개방송을 녹화한 것이다.

VHS · 5개 1SET/ 소비자가:110,000원 (VAT포함)

btn 불교 TV 영상포교사업단
TEL:(02)3272-0781~5/706-3502~5

*영축산 통도사 금강계단 석종부도